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작게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3월 1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최근 과학자들이 양, 원숭이, 돼지 등을 복제하는데 잇따라 성공하면서 인간복제의 가능성과 윤리문제를 놓고 전세계가 떠들썩하다. 우리 정부도 인간복제 기술과 관련, 실험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인간복제는 인간을 인간자신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존엄성 상실의 위험이 가장 크다는 우려다. 교계에서는 인간의 존귀함을 설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부처님말씀에 어긋나고 연기법(緣起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如來藏)을 가진 가장 부처답은 존재인 인간. 경전과 선어록은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사람의 몸 받기 어려우니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다. 세상에 나서 오래 살기 어렵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듣기 어렵다.
〈법구경〉

대장부들이여, 당신들이 우리의 선지식이오. 일체중생을 보호하므로 우리에게 보리심을 발하라고 전하는 것이오. 우리들도 당신들의 권유를 따라 일체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우리가 미래세에 성불할 때 모두 제존과 같기를 원하오.
〈방등경〉

오, 장하다 선혜(善慧)여. 도를 구하는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도다. 이같이 자극한 정성으로 너는 오는 세상에 부처의 도를 성취할 것이며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본생경〉

우리들은 모두 부처님의 아들과 같고 여래는 항상 우리를 자식으로 보고 설법하신다.
〈법화경 비유품〉

모든 중생들이 비롯 제취(諸趣)의 번뇌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래장이 있어 항상 더럽혀짐이 없고 덕상(德相)이 갖추어져 충만해 있으므로 나와 같아 차이가 없다.
〈대방등여래장경〉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귀신이나 축생, 혹은 지옥도 만든다. 그러니 마음에 따라 가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불반니원경〉

우주의 만유를 통괄함은 오직 한 이치뿐이며, 만고에 관철됨은 다만 한 마음 뿐이다. 〈御製 대방광불화엄경序〉

생명있는 모든 것 결정코 안 죽이리. 자비심 일으키어 뭇 생명 사랑하며 죽어가는 저 중생 힘따라 구호하세. 이 일을 어긴다면 그 죄를 어찌할고.
〈범망경 제1살계조〉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성품이 참진리인 줄을 알지 못한다.
〈수심결〉

문체부, 방생법회 자제요청

각 종단에 협조 공문… "생태계 파괴 우려"

문체부가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28개 불교종단과 70개 불교법인 앞으로 '방생법회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육식성 물고기의 방생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수년 전부터 불교계 일부에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육식성 물고기를 방생함으로써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고 "생태계 파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95년에도 환경부가 "방생법회시 외래어종의 사용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문체부의 한 담당자는 "자칫 불교교유의식을 정부에서 침해한다고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표현에 신중을 기했다"고 말해 '자제' 이상의 뜻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오는 4월 임진강변에서 2만여명의 신도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방생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계종총무원은 "생태계의 교란 및 파괴방지를 위해 수입물고기는 일체 사용치 않을 것"이라며 "이번 방생법회는 통일운동과 환경운동을 함께 묶는 생명공동체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계내부에서도 "94년 개혁회의 때 교구본사 및 직할사암에 물고기 방생법회의 금지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며 방생 재검토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방생법회 계획은 개혁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문태영교수(고신대 생물학과)는 방생을 모두 잘못됐다고 관단해선 안된다고 전제하고 "해당하천에 적합한 수종이라도 그곳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고려치 않고 다량의 물고기를 일시에 유입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교수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의 종을 인공사육해 살기 알맞은 곳에 방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이 지난 11일 발표한 '비불자 포교전략 중점연구 5개년 계획'에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생형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육식어종 방생자제를 요청한 문체부의 공문과 관련, "방생이란 말 그대로 생명있는 것을 살려준다는 의미이며, 자기의 마음에 불종자를 심고 나아가 생명존중 정신을 배우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살생금지 환경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방생운동'을 실시토록 각 종단에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사의 표명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지난 10일 원로회의(의장 혜암)에서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을 통해 사표를 제출했다. 조계종 종정스님이 사표를 제출하기는 62년 통합종단 출범이후 이번이 최을이다.

한편 원로회의에서는 5인 대표(벽암 원로회의 부의장, 도견 해인사 조실, 도원 삼보사조실, 총무원장, 종회의장)를 선임해 17일 통도사 정변전으로 종정스님을 방문키로 했다.


의장 혜암스님


부의장 벽암스님


의원 숭산스님


의원 탄성스님


의원 정영스님

혜암스님 의장 사표 반려

조계종 원로회의 벽암스님 부의장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혜암)는 지난 10일 총무원에서 회의를 갖고 의장 혜암스님이 제출한 사퇴서를 만장일치로 반려했다. 원로회의는 이날 승찬스님 열반으로 공석중인 부의장에 벽암스님(공주 신원사)을 선출했으며 지난 95년 11월 제119회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숭산(화계사 조실) 탄성(공림사 주지) 정영(갑사 주지)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선임했다. 안건처리에 이어 원로스님들은 97사업계획과 예산보고 등 총무행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비룡, 벽암, 석주, 응담, 도원, 지종, 성수, 도견, 청하스님이 참석했다.

조계종 비불자 포교전략 연구 추진

각국 현황등 8개분야…21세기 신행상 정립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은 지난 11일 '비불자 포교전략 중점연구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각국 불교포교 현황연구 등 8개 분야를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점연구, 포교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작업을 통해 각종 포교사업 계획수립시 활용토록 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 연구를 위해 포교원은 5월부터 매주 세미나와 심포지움을 열어 각 분야 연구사업의 각론 및 세부추진 계획을 올해 9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중점연구 과제는 △각국 불교포교현황 연구 △포교의 국제화 △포교 모범사례 발굴 및 연구 △포교기금 마련 방안 연구 △방생 등 신행프로그램 연구 △특수분야 포교방안 연구 △특수계층 포교방안 연구 △문서포교분야 등이다.

그러나 연구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청사진 제시에만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총무원 등 유관부서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동안 조계종단은 도제양성과 포교 역경을 종단 3대불사로 천명했지만 이에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신도의 고령화, 유·소년층 불자의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미래불교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종단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대장경에 새 새명을"

디지털 대장경 불사에 동참합시다

민족의 위대한 성보 팔만대장경의 전산화작업은 첨단 정보문화시대가 도래하는 21세기를 앞둔 현재 부처님의 말씀을 알기쉽고 바르게 전달하는 방편이며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는 문화사업입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정보로 전환하는 이 불사는 대장경 원문과 한글 번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입력 전산화하는 방대한 디지털대장경 작업으로 오는 2000년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불사는 12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에 국민들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대역사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3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100일간 전개하는 팔만후원인 모집운동을 적극 후원합니다. 팔만대장경 새 새명 넣기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120억원 소요…2000년 완성 목표

△기간: 3월 17일~6월 23일(100일간)
△추진방법: 1사람 1경판 만들기 운동을 통한 팔만후원인 모집
△전산화내용: 팔만대장경 원문 및 한글, 영상 입력 CD 제작
21세기 팔만대장경 경판에 후원인 이름 입력
△기금 마련을 위한 행사

행사 내용	날 짜	장 소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특별법회	4월 7일	도선사 · 봉은사
팔만대장경과 해인사학보展	5월 1~27일	호암갤러리
후원기금마련 리셉션	5월 6일	롯데호텔
고승초청법회	6월 10일	부산시민회관
고승초청법회	7월 10일	대구시민회관

△추진위원회: 조계종 종정, 조계종 총무원장, 김수환추기경, 국무총리, 문화체육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NCC 총무 등 학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계 인사 300인
△동참문의: 고려대장경연구소 (02)3785-0632~5
계좌번호: 예금주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국민은행 026-25-0007 □조흥은행 320-01-129418
□상업은행 169-04-104963 □외환은행 089-13-15051-2
□우체국 012064-0043837-11 □서울은행 32001-0683004
주최:고려대장경연구소 후원: 현대불교신문사

종단협-진흥회 '해빙 분위기'

분리냐 재결합이냐의 기로에 섰던 종단협의회와 종단진흥회가 이견차이를 좁히고 화합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월서스님(종단협 상임부회장)이 원융 총화 조동종등 8개종단 총무원장을 초청한 오찬모임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법도개최안을 협의하면서 구체화됐다. 이날 월서스님은 "그동안 종단협의회 각종 행사에 회장스님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의전상의 예우등으로 종단간의 불협화음이 조성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며 "향후 각종 행사에 회장스님이 참석토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중진급스님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종단진흥회측도 "세간에 나도는 정치적 목적있다, 분열을 조장한다는 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명확한 태도를 견지해 순수친목단체로서 불교중흥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단진흥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독료납부 온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山行은 信行…불교산악인연 창립 15면
불교문화 테마여행-3월 내소사 접수 안내14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살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등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번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 · L · E · A · N

사 설

중앙신도회에 바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지난 15일 드디어 창립되었다. 발족하는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상무대 비리사건으로 조기현 前 신도회장이 구속되는 등 '전국신도회'의 조직과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으로써 개혁종단은 새로운 중앙신도회의 창립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재가신도공동체의 결집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제 조계종은 중앙신도회 탄생으로 여법한 승가공동체를 이루게 됐다.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 널려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청산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교구 본말사의 신도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직능·직역별 신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일반의 사를 '하나로' 집결하는 작업은 자연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결성된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 앞으로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개혁종단에 부응하는 중앙신도회의 조직과 활동을 기대한다. 개혁종단의 목표는 종단의 내적 민주화와 외적 자주화로 요약된다. 과거의 신도회가 조직과 활동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며 정권에 종속된 비자주적이었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선량한 불자들을 볼모로 일부 임원들의 출세도구로 신도회가 이용당했던 것이다. 각종 이권과 권세에 편승해서 지탄을 받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삼보를 호지하고 종단을 외호하며 신행단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여 특정정당이나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하는 탈선과 범법은 결코 없어져야 한다. 크고 작은 과거의 권력유착사건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을 깊이 반성하고 불교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중화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정신을 살려서 교구 본사와 말사의 신도회가 활발히 동참할 수 있도록 청년, 학생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불자들을 직능·직역별로 조직화하고 중앙신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한 각계각층의 재가불자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이나 이권에 개입하여 대중적인 기반을 상실했던 지난 날의 폐습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실한 조직을 유지하려면 수행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확고한 신앙심을 갖고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활동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금 종단에서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과거의 산중불교, 치마불교, 어용불교와는 다르다. 1600여년이 넘도록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불교가 여러 가지 내적, 외적요인으로 제 구실을 못했던 과거를 깊이 참회하고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자비광명이 미치게 하는 운동이 바로 이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다. 서구사상에 바탕을 둔 물질문명의 붕괴는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대안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류에게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 땅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정신이 구현되어 불국정토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자비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불교의 생명력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살아 숨쉬는 불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올바른 대통령 뽑기, 역사바로세우기, 나라살리기, 우리민족 서로돕기 등의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없어져 화합된 복지정토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가 앞장서길 바란다.

열 린 마 당

동국대 불교학부 촉소위기

동국대 불교학부로 입학한 학생중 상당수가 전과(轉科)를 신청, 불교학부를 떠난다. 동국대의 상징이자 건학이념의 산실인 불교학부의 위상은 물론 자칫 존폐위기까지 느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학부제 실시에 따른 결과로 현 제도하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석좌교수 초빙 등 불교학부 내실 강화

박부권 〈동국대 교무처장〉

불교학부의 많은 인원이 전과로 빠져나가는데 대해 종립대학으로서 우려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 학부제 제도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내부적으로는 불교학부의 기초도 필요하나 대학원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학부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측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석좌교수를 초빙하는 등 불교학부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불교학부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학생들을 흡인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느냐에 있다고 본다. 제도 자체가 불교학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불교학부는 교수, 학생 할 것 없이 나름대로 능동적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부제 자체가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학과를 특성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학과만을 특성화할 수는 없다. 불교학부 내부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질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학교측에서도 이를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장치만을 요구한다면 학교측으로서도 현행제도하에서 불교학부만을 보호할 수는 없다.

실용과목 늘려 자격증 취득·취업 연계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종립 동국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학부제'의 실시로 불교학부가 인기학과에 밀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부제에 따른 불교학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불교학부를 경쟁력 있는 학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대폭 개정하여 실용적인 불교학 과목을 많이 개설해야 한다. 불교 복지학·불교 아동학·불교 상담학·불교 사회학·불교 교육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면 복지사·상담원·유아원교사·종교 교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 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교계·종단에서 불교학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불교학부를 졸업하면 준성직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법사 또는 포교사로 품수해야 한다. 일정기간 각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전법활동을 하게 한 후 종단 또는 종립학교·불교언론 등에서 채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분야의 불교 전문가를 활용하는 유능한 교수진(강사진)의 확보와 보다 많은 장학제도도 필요하다.



◇학부제 실시에 따른 불교학부 인원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동국대 캠퍼스.

학부제 실시…종교관련 학부 진통

동국대 작년 60명 입학 14명 전과 확정

서강대·이화여대 종교학부도 심각

동국대 불교학부가 비인기학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학부제로 입학한 60명 정원의 불교학부 2학년 학생중 금년 신학기에 전과(轉科)를 신청한 학생은 19명이다. 이중 14명이 전과를 최종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轉科)는 동국대가 지난해부터 학부 및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실시한 제도로, 1년간의 학부과정을 거친 2학년생은 입학시 선택했던 학부외에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전과가 허용되면서 불교학부(불교학과, 인도철학과, 선학과)를 선택했던 상당수의 인원이 빠져나감으로써 불교학부의 위상이 크게 저하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 특히 동국대 전체학생중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수가 1백21명임을 감안하면 불교학부의 전과율은 전체의 11.5%를 차지, 단일학부로는 가정교육학과(정원 30명중 전과 7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학부 학생회측은 "이대로 가다가는 불교학부가 존폐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며 학부제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같은 예는 비단 불교종립 동국대 불교학부만의 경우는 아니다. 서강대 신학과의 경우는 전공신청자가 1명도 없었으며,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는 4명에 불과해 일부 인기학과에만 전공학과 선택이 몰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생회측이 반발하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올해부터 불교학부 정원을 80명에서 70명으로 줄이고 불교대학원의 정원을 두배 가까이 늘린 것. 이는 학문의 기초가 학부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기본상식에조차 어긋나는 학사행정이며, 종립학교가 어떻게 불교학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전과를 신청하는 학생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빠져나갈 경우 편입생을 받아들여 이를 메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불교학부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목어

때묻은 옷을 빨자

옛날에 한 외아들이 있었다. 부모는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선생님을 모셔 공부를 시켰다. 아이는 건방져 공부보다 노는데만 정신을 팔았다. 부모는 아들에게 가사를 돌보게 했다. 그러나 아들은 일은커녕 오히려 집안의 살림살이를 내다파는 등 제멋대로 놀아났다. 마침내 가세는 궁해지고 모든 일이 형편없이 되었다.

아들은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어리석은 일만 저질렀다. 그 고장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다.

자기 잘못을 모르는 그는 도리어 주변사람들을 탓했다. 부모를 원망하고 스승을 책망했다. 조상의 영혼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같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부처님을 섬겨 복을 얻어야겠다'며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도를 구하고자 할진대 청정해야 한다. 네가 세속의 더러움을 지닌채 내 가르침 속에 들어온들 무슨 큰 이익이 있겠느냐? 집에 돌아가 스스로 뉘우치고 단속하여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남의 칭송을 듣게 될 것이다."

3년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가르침대로 행하여 상하가 두루 기쁨을 입었사오니 이제 거두어 도를 배우게 하소서."

그는 사문이 되어 나한과를 얻었다.

김영삼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나라 안이 들끓고 있다.

평범한 시민과 다름없는 대통령의 아들이 국정개입·정치개입이라니…. 이 나라에 그런 잘못을 미리 막아주고 이끌어줄 인물이 그렇게도 없었단 말인가.

이제 뒤늦게 의혹을 규명하고 혐의가 밝혀지면 법대로 처리한다고 하나 선행돼야 할 일이 있다.

현철씨 의혹에 연루돼 있는 모든 이들의 속깊은 참회다. 법으로 처리하기 전에 '마음의 法' 즉 양심의 심판을 스스로 내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뉘우침도 善心이므로 참회하면 때묻은 옷을 빨아 깨끗해 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는 총명하고 영리하다' 하여 죄를 숨기고 뉘우치지 않으면 죄는 밤낮으로 늘어날 것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어허!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의 불교공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경전강독
● 교양의식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포 천
일동 사이판

자연의 도량속에 위치한 전통 재래식 황토 불 한증막과 황토 사우나

세속의 번뇌와 무명을 씻어내고 부처님을 만납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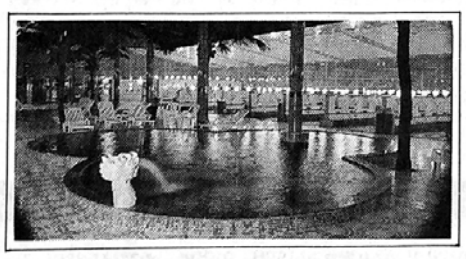
● 도피안사, 홍룡사, 채신사, 산정호수, 백운폭포, 베어스타운등 각종 위락시설로 이어지는 서울근교의 자연생활
● 포천 관광 단지내에 위치한 「일동 사이판」은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식 황토 불 한증막과 황토사우나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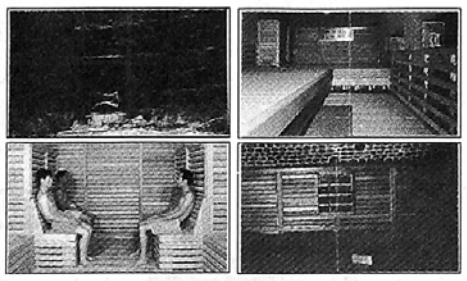
● 일동 사이판 전경



● 국내 최초 실내 썬텐



● 초대형 욕장



● 불 한증막 및 황토, 고온, 한방사우나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 시외버스: 상봉터미널, 수유리시외버스터미널 일동직행버스 일동하차
· 자가운전: 43번국도-(포천-3.8교- 성동삼거리 우회전 4km)
47번국도- (퇴계원-광릉입구-내리-일동-산정호수방면 4km)

◑ 신토불이 ◐
강원 철원지방에서 생산된
싱싱한 과일등으로
향토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일동 사이판은

● 국내 최고의 유황천
● 불 한증막
● 황토, 고온, 한악사우나
● 수중 안마탕
● 국내 최대의 대형 목욕장
● 실내 썬텐시설
● 신선하고 격조높은 노천탕
● 초대형 냉탕 및 주차시설 완비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수입리 705번지
TEL:(0357)536-2000

16일 출가절 · 23일 열반절 **조계종 매년 얼마나 출가하나**

"한해 400여명 산문 들어선다"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문은 욕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사십이장경〉

열반으로 가는 첫걸음 출가의 의미를 새기면서 매년 청정비구의 길을 선택하는 불제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

한국불교 전체승려는 3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대표적 비구종단인 조계종의 승려수는 1만3천3백87명(93년)으로 불교종단 가운데 가장 많다. 조계종 승려수는 지난 72년 1만3천51명, 83년에는 1만3천1백46명이었다. 매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출가에서 열반에 이르는 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91년에서 93년까지의 출가자는 모두 1천1백92명에 이른다. 따라서 자연사 인원을 출가자의 절반으로 친다면 6백여명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유는 출가의 길을 걷다가 환속하기 때문이다. 환속하는 경우에 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91년 이후 지난 해까지 출가자는 모두 2천6백여명으로 년평균 4백3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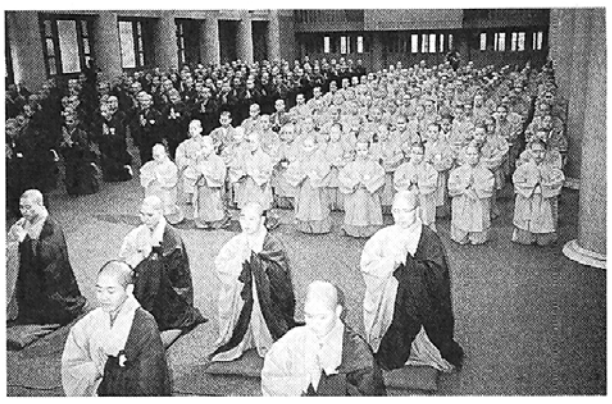
입산에서 수계까지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 조계종은 출가사찰에서 6개월여 동안 기초교육을 마친 사람에 한해 1개월 동안 행자교육을 실시, 이 과정을 마쳐야 예비승려인 사미·사미니계를 수여한다. 이후 4년 동안의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서의 소정의 과정을 마쳐야 비로소 정식승려인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따라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년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출가자는 인천(人天)의 사표가 되는 수행자를 배출한다는 점에 유의해 입산자의 출가동기 교육정도(고졸 이상) 건강 신상 등을 면밀히 검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해 입산을 허락하고 있다.

대만의 수계는 명나라 말기 견월독체율사(見月讀體律師)가 지은 〈전계오범〉(傳戒五範)을 근거로 삼단대계(三壇大戒)의 식을 거행한다. 1년에 2, 3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삼단대계에 따라 비구·비구니계를 받아 정식 승려가 된다.

지난 해에 4백여명이 수계를 받았다. 티벳은 승원에 입교한 것으로 승려로서 신분을 얻는다. 승원에서 16년간 반야학·불교논리학·중관학·아비달마구사론·계율 등을 배우고 시험을 거쳐 게쇄(dga bshes, 박사)를 부여받는다.

정성운 · 오종욱 기자



◇부처님의 길을 잇기 위해 번뇌에 얽매인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부처님전에 호궤합장한 스님들. 사진은 조계종 사미(니)계 수계식 장면.

"욕망 쉬고 애욕 끊어 열반에 이르오리"
해마다 총숫자 변화없어 환속수 짐작 가능

출가 · 열반절 주요법회



◇서암스님



◇인환스님

16일 출가절과 23일 열반절까지 1주일을 전국의 사찰과 단체들은 기념 특별법회를 갖는등 경건하게 정진주간으로 맞이하고 있다.

중흥사(주지 도각)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보내고 있다. 1주일 내내 오전 10시 서암스님 법어가 있고 이어 11시부터 12시까지 독경한다.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인환스님 초청 강설이 있고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회기도에 들어간다. (02-355-4488)

조계사(주지 현근)는 이 기간 내내 오전 10시 설법기도대법회를 연다. 특히 조계사 산하 10여개 신행단체

중흥사 서암·인환스님 특별법어
조계사 신행단체 연합 정진기도
강남포교원 고은·강건기씨 초청강연

들은 16일부터 22일까지 오후7시에 연합 출가정진기도를 가져 단기출가 정신으로 보낸다.(02-732-2115)

5년여 출가 열반절을 특별정진기간으로 보내고 있는 강남포교원(원장 성열)은 17일부터 22일까지 오전10시 정진기도 및 사경법회를 연다. 특별 강연회도 마련 20일 오후7시30분 강건기교수(전북대)를, 21일에는 고은 시인을 초청 강연을 듣는다.(02-539-2631)

사경법회는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도 16일부터 23일 오전 10시에 갖는다. (051-816-2241)

석왕사(032-663-7771)가 출가절 수계식을 실시하고, 부산 감로사(051-809-0962)가 18일부터 22일까지 오전9시 3천불 3천배 참회기도를 하며, 향림사(062-375-7600)가 16일 오전10시 고화주 영가천도법회를 벌인다.

시 론

걸림없고 멋있는 우리 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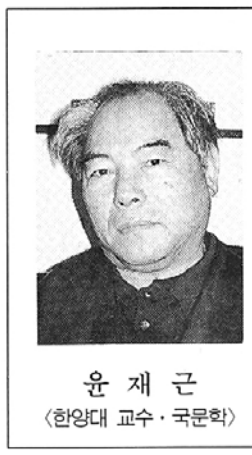
최근 한복등 우리옷을 즐겨입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매달 '한복 입는 날'을 정한 문체부의 결단도 나왔고 토요일에는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동사무소도 등장하게 되었다. 고궁이나 사찰(은해사)에 우리옷을 착용하면 입장료를 받지않는 등 우리옷입기가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문화의식을 밝히는 청신호이다.

양복에 정복당한 민족얼

아름다운 옷은 입고 벗을 때 편하고, 입어서 몸이 편하다. 남정네의 바지 저고리와 여인네 치마 저고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이다. 입고 있는 동안 옷 속에 들어있는 몸이 아주 편해 싸매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 우리 한복은 몸을 낙낙하게 한다.

한복의 치수는 몸에 맞춘다기보다 몸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품은 몸에 넉넉하면 되고 춤은 몸에 알맞으면 되고 통은 몸을 헐렁하게 하면 되는 것이 한복의 매무새이다.

양복은 옷맵시를 살리느라 몸을 불편하게 하는 옷에 속한다. 그리고 속옷 없이는 못입는 옷이 양복이다. 이러한 양복이지만 일하기에 편리한 옷이 양복이고, 한복은 거추장스러워 일하기에 불편하다는 편견이 일반화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된 까닭은 조선 것을 낡은 것이라고 몰아 부쳤던 개화사상(開化思想)탓도 있었을 것이며, 일제(日帝)가 한국인의 얼을 없애려고 조선옷을 벗겨내고 국적 없는 옷을 걸치게 하려던 음모도 있었을 것이고, 광복 이후 역시 서양버람에 지식층이 한복을 버리고 양복을 입어버린 탓도 있다.



윤 재 근
〈한양대 교수 · 국문학〉

우리가 우리 옷을 벗어던지고 양복을 이제 우리 옷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복식현실(服飾現實)이 되고 말았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으면 흉이 된다. 아름답고 훌륭한 우리 옷을 버리고 양복을 입게 되어 부끄럽게 되었다는 복식의식(服飾意識)이 늦게나마 싹이 트고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최근의 '한복입기운동'이 한번 해보는 행사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 문화를 행사거리 정도로 여기면 부끄러운 흉터만 생길 뿐이다. 그렇다고 양복을 벗어던지고 한복을 입기는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러한 복식현실을 인정하고 한복에 대한 재인식(再認識)을 하도록 유도해 제정신을 차리게 하는 계기로만 삼아도 얻청난 뜻이 있다.

한복을 입어 보게 하는 동기부여가 마련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한번이라도 입어 보게 되리라고 본다. 한복을 너무 비싼 예복으로 고립시킨 처사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알맞은 값에 한복을 사서 입어볼 수 있도록 생활한복을 널리 입게 하는 생활풍속을 자리잡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옷에 스며있는 우리의 정서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 한복은 과거의 옷이 아니라 미래의 옷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한복은 우리의 정서를 남김없이 표현해 준다. 한복의 마름선은 어디나 직선이 아니고 둥근 곡선으로 이어진다. 바지통의 배흘림, 옷소매의 반달같은 흘림, 치마의 주름과 자락이 볼록하게 만나는 흘림 등등 곡선의 흐름이 매듭도 그침도 없이 연이어 흐른다.

한복은 억지로 베고 잘라 구멍을 내지 않는다. 단추 구멍 대신에 옷고름으로 매고 허리띠로 허리 춤에 매게 하는 한복은 자연스럽다. 천을 잘라 호주머니를 붙이지 않아 무욕의 습성을 갖게 한다.

그리고 품과 춤 그리고 통을 헐렁하게하여 온 몸을 편하게 감싸면서 옷과 살 사이를 훌렁하게하여 겨울에는 몸을 따뜻이 하고 여름에는 몸을 시원하게 한다. 훌렁하고 헐렁한 한복은 걸림없이 낙낙하게 사는 우리의 정서를 말해준다.

미래의 옷으로 되살려야

이처럼 따뜻하고 정겹게 서로 이웃하며 살라는 이웃사촌의 정서가 한복에 배어 있다. 이러한 한복의 복식정신(服飾精神)을 환기시킨다면 비록 양복을 입고 살지라도 한복이 체험하게 하는 이웃사촌의 정신이 새롭게 생활화 될 수 있다고 본다. 한복에 담긴 우리의 정을 잃지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양복을 입는다면 서양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양복을 입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를 앞두고 한복입기는 의미가 있다.

'참희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문 희 웅

분심을 일으키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요즈음 청소년들에게는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가정, 또는 입시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기반성 없이 눈치만 보며 잘못이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요령만 키워가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을 보면서 적잖이 걱정된다. 그것은 뉘우침이 없는 생활로 일관하는 삶은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기(轉機)를 지나면서 거듭 태어나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가는 것인데, 청소년들의 삶이 늘 반성없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같은 현실을 놓고 고민하던차에 책에서 읽은 신라시대 한 스님의 체험담은 감동적이었다.

신라 문무왕 때 혜통(慧通)이라는 스님의 이야기이다. 스님이 출가하기 전 어느 날 수달피를 잡아 먹고 그 뼈를 마당에 버렸는데 다음날 뼈가 없어졌다. 이상해서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그 뼈가 제 집으로 돌아가서 새끼 다섯마리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게 놀란 스님은 뉘우치고 발심하여 출가를 하였다. 굳은 결심으로 출가한 터였으므로 분골쇄신 수행하다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당나라의 무외(無畏)스님에게 법을 구하러 3년을 극진히 모시며 기다렸으나 해동(海東)의 소국에서 왔다하며 무시하자 불화로를 머리에 이고 뜰에 서 있으니 정수가 터지며 우뢰와 같은 소리가 났다. 이를 본 무외 삼장(三藏)이 놀라 달려와 머리에 손을 얹고 진언(眞言)을 외워 낫게 하였는데 상처 자리에 '왕(王)' 자(字)가 생겼으므로 왕화상(王和尙)이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 후 혜통스님은 진언종(眞言宗)의 초조가 되었다고 한다.

이 혜통스님이 젊은 날 수달피를 잡아먹고 난뒤에도 사무치는 참회(懺悔)가 없었더라면 출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당나라에 유학하여 무외스님이 자신에게 법을 전해주지 않는 모욕에 억울함과 통탄스러움을 느끼고 결연한 의지, 즉 분심(憤心)을 일으켰기에 진언종의 종지를 배운 것이다.

그렇다. 참회와 분심은 우리 청소년 불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밝은 미래를 확정짓는 부처님의 수기(授記)이다. 참회가 참된 도(道)에 들어가는 원천이라면 분심(憤心)은 끝내 도를 이루어내는 폭발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명성여자고등학교 교장〉

생활 속의 불교 ⑭

믿음과 의지를 밑천 삼아 황소처럼 걸어가라

"생활을 떠나서 불법을 따로 구하지 말라. 생활을 외면하고 따로 그 어떤 것이 있다고 믿지 말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곧 불법이니 내가 있는 것이 불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생활을 불교식으로 바꾸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생활과 존재 그 자체가 불법임을 깊이 깨닫는 것은 큰 일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기 보다 생활이 진리임을 알라."

어떤 사람이 봄 소식을 살피려고 산과 들을 헤매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마당에 매화가 피어 있더라고 했다. 불법은 먼 곳에 있는게 아니라 바로 내 생활 속에 있다.

물 한모금 마시는데, 밥 한 술 떠넣는데에 불법이 있다.

일하고 움직이는 거기에 불법이 있다.

말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손 한번 뻗고 발걸음 떼어 놓는 데에 불법이 있다.

불법은 법당에만 있는게 아니라 안방에도 있고 부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다.

밥 짓는 일, 청소하는 일, 설겆이 하는 일, 아이 돌보는 일에도 불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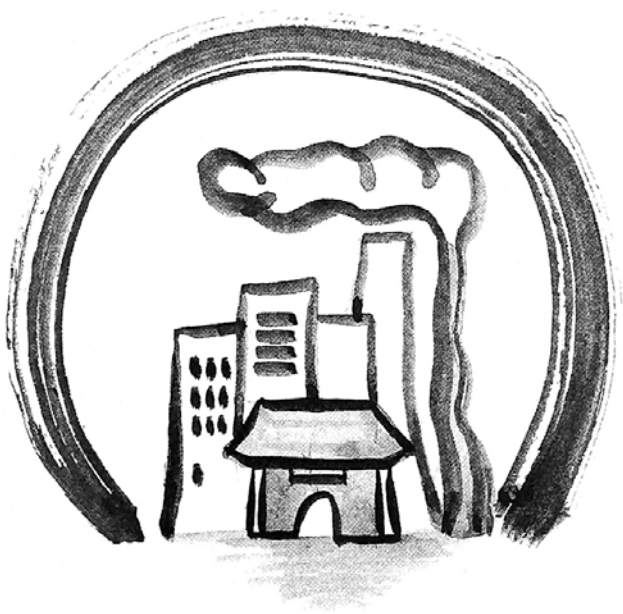
물건을 만드는 일, 농사 일에도 불법이 있다.

그러기에 풀 한 포기라도 불법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스님들의 살림에만 불법이 있는게 아니라 중생들의 살림살이 구석구석에도 불법이 있다. 고로 사찰만이 도량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도량이 되고 법상이 된다. 내가 딛고 선 어떤 곳이든 그대로 여래의 집이 된다.

불법은 현실의 법이요 생활의 법인 것이다.

따라서 불법공부란 경전이나 예불을 통해서만 가능한게 아니다. 공부하기로 들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그래서 스님의 살림이나 중생의 살림이나 공부하는 데는 다를 게 없다. 법당에 가야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산 속으로 들어가 틀고 앉아야만 공부가 되는게 아니다. 공부는 지하철 속에서도 되고 저자거리에서도 된다. 거기서 되지 않으면 산에 가서도 되지 않고 법당에 가서도 되지 않는다.



주부들이 밥 짓고 빨래하는 일에도 도가 있다.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공양의 도리가 있을 수 있고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이 세탁하는 도리가 있을 수 있다. 설겆이를 하면서는 마음 비우는 도리를 염할 수 있을 것이고 청소를 하면서는 청정한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기로 들면 불법공부야 말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만큼 쉽다는 비유도 있다.

마음공부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따로 시간을 떼어 낼 필요도 없다. 누구와 겨룰 일도 없고 누구와 자리다툼할 일도 없다. 세간의 어떤 일이 이와 같겠는가. 세간 일 쳐 놓고 돈 안들고 시간 안드는 일이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불법공부를 어렵다고 한다. 빨리 뭔가를 이뤄보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보자. 대학 졸업장 하나를 따는데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꼬박 16년이 걸린다.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 가던가. 석사 박사를 따자면 또 몇 년 세월을 더 투자해야 한다.

한 세상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그만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불법공부만은 쉽게 하고 싶어 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불법은 생활의 법이니까 불법공부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냥 생활처럼 하면된다. 필요한게 있다면 그것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그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뿐이다.

믿음과 의지를 밑천삼아 뚜벅뚜벅 황소처럼 걸어가면 된다.

황소걸음이 천리를 간다.

협찬 : 김태윤 · 오복남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법회안내

연동사(서울포교당)(02)383-6880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1시
성지순례 매월 10일
미타재일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1시
〈불교교양대학강좌〉
불교입문강좌
매월 첫째주 월 오전11시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 오후2시
한문특강 매월 셋째 주 금 오후3시

용선사(02)394-9765

화엄입등기도 1~3일(음) 오전11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1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거사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주 월, 금 오후2시
성지순례법회 매월 1회
철야기도법회 매월 셋째주 토
오후9시~다음날 오전5시 회향

보광사(0667)763-1192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격주 토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월 토 오후4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7시

분황사(0561)42-9922

인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약사회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자장회법회 매주 금 오전10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오사(053)784-3669

다라니기도 매월 1일 오후8시
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지비도량참법기도
매월 15일(음) 15일간 오전10시
생활예법지도 및 참회기도
매월 그믐(음) 오후7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거리캠페인 801,000원 △정토불교대학 54,00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모금 2,768,000원 △제1차 사랑방모임 보시금 30,000원 △박상은 1천만원 △송영희, 양영우 2,000,000원 △김영애 1,000,000원 △윤용숙 1,000,000원 △장적스님 200,000원 △황우용 124,000원 △윤금선 100,000원 △선교엄마 13,200원 △김일현 10,000원 △박영서 70,000원 외19명
〈12일 현재 총 124,806,001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월주스님 신임 총리·내무·문체장관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7일 고건 신임 국무총리〈사진 위〉, 12일 송태호 신임 문체부장관〈사진 중앙〉과 강운태 신임 내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날 송 문체부장관은 "사회윤리회복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월주스님은 "문화재 보수·관리 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1%는 돼야 한다"면서 증액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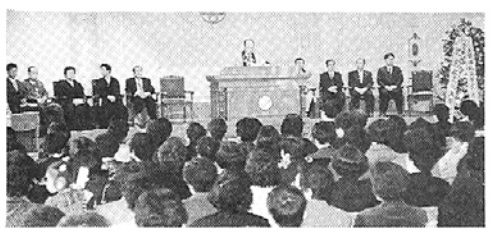
직지사 황악산 자연보호 활동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는 지난 9일 사찰 주변 일대에 대한 쓰레기줍기를 실시했다. 환경보호캠페인을 겸해 벌어진 이날 행사에는 부주지 법등스님을 비롯 7직스님과 직지사신도회원, 김천중·고등학생 등 사부대중 3백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슬로건은 "밝은 마음 깨끗한 정토", "자연을 사랑합시다" 등 이다.



한국불교교화원 임원 취임법회

한국불교교화원(원장 운월스님)은 지난 10일 이사장 성도스님(도립사 주지) 원장 운월스님(여래원 주지) 등 임원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자리에는 同교화원 이외윤총재, 동립동문회장 성웅스님(남장사 주지)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원장 운월스님은 "대한불교대학 운영과 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각종 밀교문화대학 입학식

진각종(통리원장 락혜) '밀교문화대학' 제1회 입학식이 지난 12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는 락혜, 성초(진각대학장) 등 종단관계자와 입학생 1백46명 등 모두 2백여명이 참석했다.

밀교문화대학은 진각종학, 불교학, 밀교학 등을 교과목으로 편성했으며 학비는 전면 무료이다.



'봉은사지' 발간기념 법회

〈봉은사지〉 발간 기념법회가 지난 11일 봉은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봉은사 조실 석주스님을 비롯 무상(봉은사 주지), 지하(중앙승가대 총장), 성관(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스님과 김상영교수(중앙승가대)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봉은사지〉는 봉은사 창건과 연혁, 역대 고승 및 성보문화재, 가람구조를 비롯한 각종 문헌자료를 담았다.

교차로

한불회 공동대표 추대







혜창 조계종 총무부장〈사진 위〉 범하통사 박물관장(사진 중앙) 지명 청계사 주지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천 여 명 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한 한민족불교중흥회 공동대표로 추대됐다.

세미나 참석차 일시귀국



도안 LA 관음사 주지는 지난 11일 일시 귀국 14일까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주최한 '북한식량난과 국제 민간지원 세미나'에 참석하고 불교TV 경영과 관련 관계자들을 만났다. 스님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LA지부 중앙회 의장을 맡고 있다.

홍제중에 장학금 기탁

신허 표충사 주지는 지난 12일 열린 밀양 홍제중학교 졸업식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노천 지장보살 조성 입제



정수 화천 보은사 주지는 3m 50㎝ 크기의 노천 지장보살좌상 조성 불사에 들어가 오는 26일(지장재일) 입제식을 갖는다. (0363)441-4449

전국노인대회 참가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스님은 지난 10일 오후2시 파고다공원에서 열린 무각출 제정촉구를 위한 전국노인대회에 참석했다.

대웅전 준공 삼천불 봉안



원종 강화 보문사 주지는 지난 13일 대웅전 준공 및 삼천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중앙승가대 수행관장에



원소 前 조계종 총무원 사무국장 스님은 지난 3일 중앙승가대학 비구 수행관 관장에 임명됐다.

동대 사회교육원장에 임명



서윤길 동국대교수는 지난 6일 동국대 사회교육원장에 임명됐다.

자민련 불자회장 피선



박철언 자민련부총재는 오는 25일 자민련 불자회 창립 2주년 기념법회에서 제2대 불자회장에 취임한다.

한국불교태 출판부장 맡아

김인수 前 대한불교 편집국장은 최근 (사)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 출판부장직을 맡았다.



혜초여행사 사무실 이전



심상돈 혜초여행사 대표이사는 지난 8일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02)733-3900

前종회의원 수인스님 입적

수인스님(부산 서운암)이 지난 12일 세수 99세 법랍 85세로 입적, 14일 범어사에서 다비식을 치뤘다.

스님은 55년 운문사 비구니 초대주지, 58년 능인학원이사, 59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86년부터 부산 서운암에서 수행정진해 왔다.

"세계불자교수회·선원건립 추진"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류종민 교수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교불련을 활성화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라는 책무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불련은 새로 창립하는 초발심으로 수행과 학술활동을 펴나갈 것입니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새 회장에 선출된 류종민교수(55세, 중앙대 조소과)는 의욕에 차있다. 창립맴버를 주축으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고 조직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수행풍토의 진작을 위해 선원건립을 본격화해 건립기금 2천만원을 토대로 모금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금년에 한·중 교류를 이뤄 내년이면 '세계불자교수회'를 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불련이 실천하는 지성그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회장은 지켜봐 달라고 주문한다.

위영란 기자

"생활주변 신행체험 담았어요"

'40년 운전사…' 책낸 변석은 씨

"신행의 기쁨은 진정 가까운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사찰버스 기사의 생생한 신행체험이 녹아있는 인생기〈40년 운전사의 인생수첩〉(솔바람刊)을 발간한 변석은씨(60).



그는 송암사(주지 해운) 버스기사로 지난 8년간 틈틈이 모아온 글을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40년…〉에는 폭풍처럼 달려온 인생의 인연이야기들과 운전기사로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신도들의 궂은 일을 수행이라 믿고 도맡아온 신행체험, 특히 운전자들을 위한교통사고 예방법 등을 실었다.

이밖에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 등 불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도있다. "인생의 고비때마다 불법을 믿고 따라 잘 넘길수 있었다"는 그는 "앞으로도 불자들을 위한 교통자원봉사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게시판

세미나 선정문화와 민족통일=오는 25일 오후 6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족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선정(禪定)문화와 민족통일'을 주제로 제3회 하나로포럼을 연다.

강좌 불일교양대=법련사 불일교양대학은 오는 31일까지 5개월과정의 97학년도 제3기 기초경전반 제2기 어록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33-5322

불교의 선사상=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영조스님)은 18일~4월 1일까지 '불교의 선사상'을 주제로 제1학기 개강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062)228-9098

알림 사회복지수첩 배포=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지난 3일 1백50개 복지단체와 3백여명의 종사자 등의 연락처가 수록된 불교사회복지수첩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02)723-5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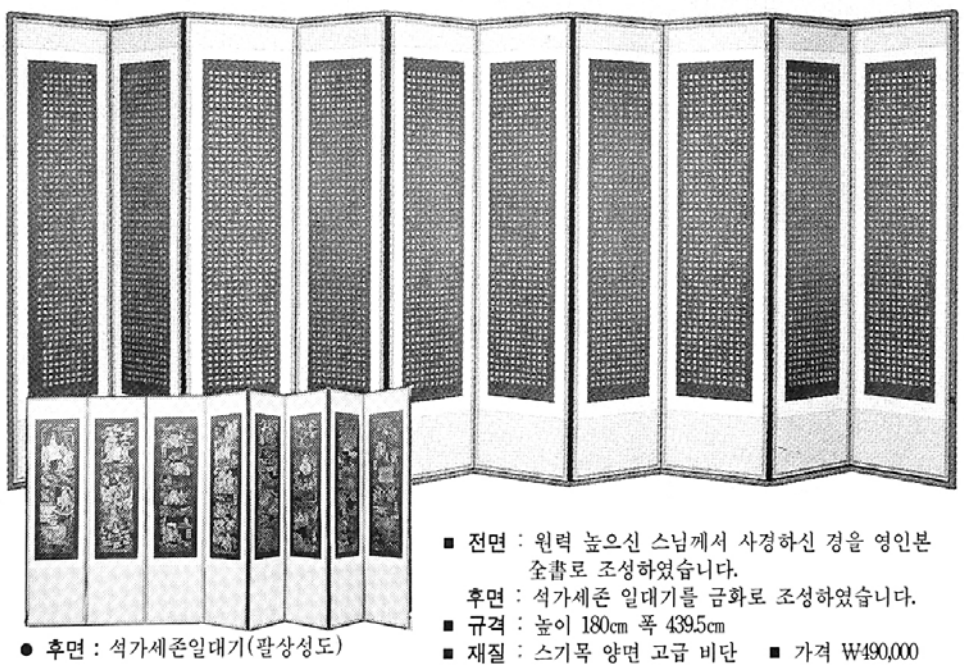
모집 염불공양회원=바라밀포교원(원장 효종)은 장례대행 봉사활동을 펼칠 염불공양회원을 모집한다. (051)633-6412

장학금 수여 대상자=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범산스님)은 생활보호대상자, 반석차 15%이내인 학생을 대상자으로 장학금 수여자를 모집한다. (051)893-5034

위없이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병풍에 담아 불자님께 전합니다!

금강경 10폭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병풍 - 금강경
지금 가격 부담 없이 가까이 모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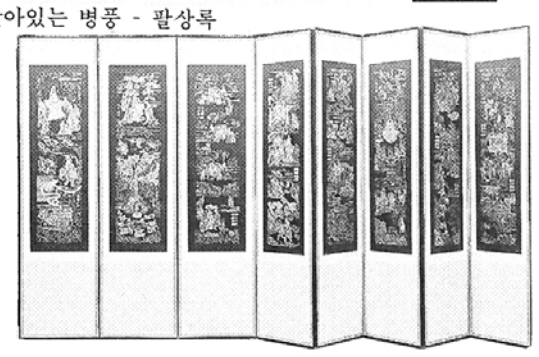


● 후면 : 석가세존일대기(팔상성도)

■ 전면 : 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경을 영인본 全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 : 석가세존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하였습니다.
■ 규격 : 높이 180㎝ 폭 439.5㎝
■ 재질 : 스기목 양면 고급 비단 ■ 가격 ₩49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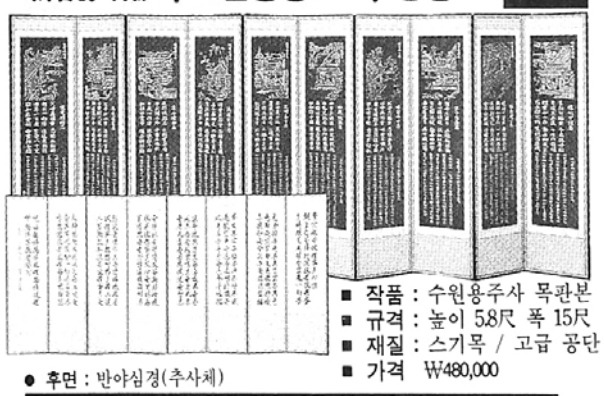
성보 八相錄 8폭 병풍 全·書·畵

살아있는 병풍 - 팔상록



● 규격 : 높이 5.5尺 폭 12尺 ● 재질 : 스기목/고급 공단 ■ 가격 ₩390,000

佛說大報 부모은중경 10폭 병풍 全·書·畵



● 후면 : 반야심경(추사체)

■ 작품 : 수원용주사 목판본
■ 규격 : 높이 5.8尺 폭 15尺
■ 재질 : 스기목 / 고급 공단
■ 가격 ₩480,000

기획·제작 전문 불사의 집
三田佛事
대표전화 (02)732-6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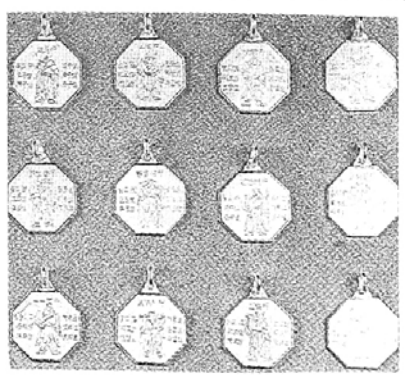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기(氣) 띠부적 메달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모를 합니다.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자신의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氣로써 천운의 길로 돌려 놓는 불가사의한 부적입니다.
각 띠별로 자신의 궤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子) 쥐띠(만월보살)
(丑) 소띠(천수보살)
(寅) 범띠(대륜보살)
(卯) 토끼띠(수월보살)
(辰) 용띠(관세음보살)
(巳) 뱀띠(관자재보살)
(午) 말띠(여의륜보살)
(未) 양띠(대세지보살)
(申) 원숭이띠(십일면보살)
(酉) 닭띠(군다리보살)
(戌) 개띠(정취보살)
(亥) 돼지띠(아미타불)

● 앞면 : 띠인연보살상 ● 뒷면 : 띠별십이지수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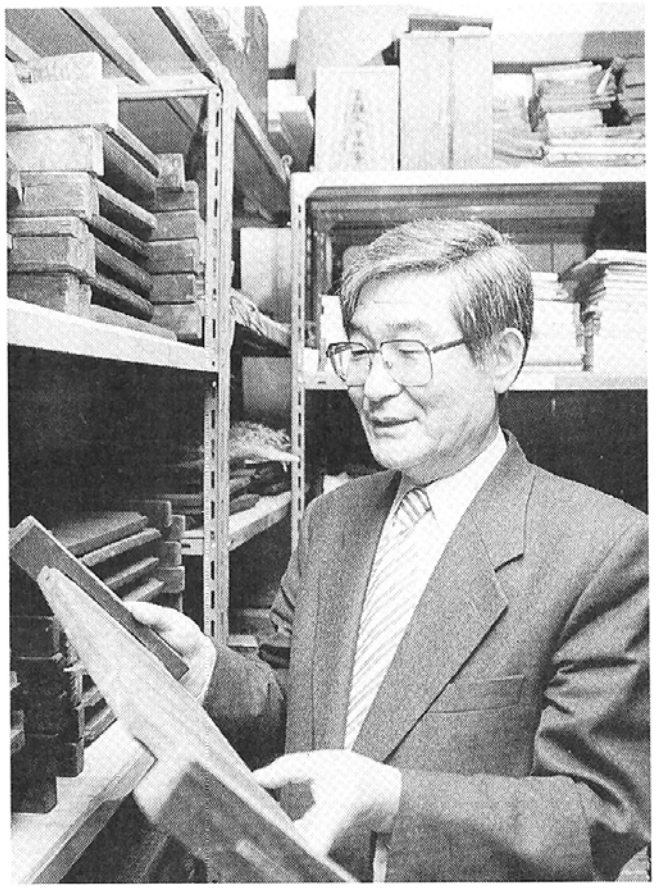


● 재질: 순은 99.9%(약 7돈 체인포함) ■ 가격 ₩48,000

"박물관서 '문화의 힘' 나오죠"

산문박의 수첩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



삼성출판사 회장, 한국차문화협회 부회장, 문화재 전문위원, 기업메세나협의회 발기회원, 민학회 회장….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관장의 여러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여러 이름들은 우리시대의 '전천후 문화인' 김종규로 모아진다.

그는 매일 두 곳으로 출근한다. 서울 서초동 삼성출판사 신 사옥과 당산동 출판박물관. 94년 출판사 사장직을 큰 조카에게 물려준 후 좀 더 많은 시간을 박물관에 쏟게 되었다. 오히려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높은 자리는 올라감과 동시에 내려와야 합니다. 출판도 정보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감각을 갖춘 젊은 사람들이 맡아야죠. 김진용사장이 잘하고 있어 출판일은 걱정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그의 첫째 일은 50만여 점에 이르는 소장품 정리이다. 개관 이후 개관기념전을 비롯 '교과서 특별기획전' '한국신문학(新文學) 특별기획전' '백두산자료 특별전' '여성자료전' 등 매년 1회꼴로 특별전시회를 열어 왔다. 올해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특히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인 점을 감안, 문화유산의 가치를 관람객이 체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묘안을 짜고 있다.

문화의 힘을 믿는 그이가 어떤 작품(?)을 내놓을까, 자못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 뼈있는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

"90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50만명이 다녀갔는데, 정치인이나 기업가 등 이른바 실력자들의 발길은 뜸했습니다. 박물관은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입니다. 역사와 전통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박물관입니다."

문화의 힘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문화론이 전천후 문화인으로 불리우는 원천이다.

"다선회(茶禪會) 종장으로 모시고 있던 효당 최범술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국악인 박귀희씨 제자인 정한희씨가 효당선생 생일잔치에서 가야금병창을 연주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선생께서 눈물을 쏟으며 우시더군요. 평소에 근엄하기만 하던 효당선생이 우시다니, 놀랍기도 하고 절로 숙연해지더군요. 우리의 문화에 깃든 위력을 새삼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문화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닐까요."

> "근엄하시던 故 효당선생이 가야금병창을 들으시며 눈물을 쏟고 우시더군요 우리문화의 위력을 새삼 가슴깊이 느꼈어요"

독서도 그의 중요한 일과이다. 박물관 2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책으로 빽빽하다. 모두 지인들이 친필사인을 해서 보내준 것들이다. 고은 김용운 천혜봉 김충렬 강우방 김문환 공성진 정양모 구상 이시형 남재희 이동원 이호철…. 보내준 책들을 읽고 간단한 평도 붙이고, 출판인인지라 책의 장정, 오자, 잘못된 문장을 꼬집는다.

"보내준 분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책 한권 내기 위해 쌓은 인고의 세월에 대한 경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귀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출판 일에 뛰어든 것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형(김봉규·현 삼성출판사 고문)의 요청으로 부산지사장을 맡은 64년부터였다. 그리고 30대 이상이면 삼성출판사에서 펴낸 한국단편소설선집 세계문학전집 세계사상선집 한 두권은 보았을 정도의 출판사로 일구었다. 이때 발원한 것이 하나 있다. 출판박물관을 세우는 일. 그는 어수선한 부산 복수동거리에서 미래를 발견했다. 고서와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생활용품들이 여기저기 나돌았다.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틈나는대로 헌책방을 뒤졌다.

"발원사상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와 가슴 속에 영상화해야 합니다. 5년 후 혹은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때 나는 내 나름대로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발원이 그림으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것은 북수동 거리를 헤맨 지 30여년이 지나서 였다. 이때 한 신문은 "삼성출판박물관 개관식 때 김종규관장은 여러번 울먹였다"고 첫 문장을 장식했다.

"금속활자 최초 발명국의 명예를 이어가야 한다는 출판인으로서의 사명감이라 해야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박물관 건립까지의 회고는 예상밖으로 담담하다. 그리고 "몇백년 전 조상들의 지혜를 전수받는 문화공간"이라는 말로 박물관의 역할을 평가한다.

출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그의 얘기가 길어진다. 책을 읽지 않는 요즘의 세태에 대한 아쉬움이 얘기 곳곳에 배어 있다.

"한평생 살아가며 사람을 만나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뭔가를 알만 하면 세상을 뜨고 말지요. 공자 같은 성인도 50세에 지천명(知天命)했다고 하는데, 남의 경험을 내 것으로 삼는 최고의 방법은 독서말고 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책 만드는 일 이상의 좋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지난 94년 장경각에서 펴낸 벽암록의 텍스트가 삼성출판박물관 소장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람으로 여깁니다."

"앞으로 그릴 그림이요?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유지와 보존이죠. 연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것이 남은 일입니다. 지난 달에 민학회 회장으로 뽑혔는데, 연구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 것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책으로 엮어 대중화하는 일도 곧 시작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가 못하면 다음 사람이 이어서 하도록 토대를 마련해야지요. 당대에 마치겠다는 마음도 욕심입니다."

> "조상들 지혜 전수받을 공간 마련하자"
> 90년 출판박물관 설립… 책만들기 30년
> 정치·기업인 문화사랑 관심 부족
> 독서는 남의 경험 내것 만드는 최선법

정성운 기자

卍·十자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

문 기독교의 십자 표지와 불교의 卍자 표지는 그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요?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지요?

〈황인섭 · 경남 통영시 산양읍〉

답 불교의 만(卍)자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은 오직 나툼일뿐 끝간데 없이, 앞 뒤도 없고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영원히 돌아간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끄트머리를 구부려 놓은 게 돌고 돈다, 생명의 불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바퀴라고 해도 됩니다. 법륜마크도 불바퀴요 卍자도 불바퀴이죠.

십자가는 아래로 길게 그어 놓았는데 그건 인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적십자는 가로 세로가 같은데 그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평등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다 기독교다 하는 구분은 상점에 붙은 간판이나 상표와 같습니다. 이름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 바로 진리입니다. 불교는 특정종교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대로 진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교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어 불자들까지도 불교를 가톨릭이나 기독교 또는 알라신교 등과 구별해서 특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겉으로 드러난 불교적인 모습에서 불교를 만나려고 합니다. 가령 승복을 걸치고 불상을 모시고 목탁을 치면 불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 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생명으로 말하면 생명의 실상 그것이고 만물로 말하면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가 그대로 불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믿을 것은 진리이지 그 무엇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삼천대천세계 우주의 근본은 인간 마음의 근본에 있고 천지의 근본도 마음에 있고 태양의 근본도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종말론 등 세기말 예언 많은데

문 세기 말을 맞아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인류의 장래가 어떻다는 내용의 얘기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엔 말하자면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업이 작용하는 것을 예견해서 말해 놓은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스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인범 · 전남 여천군 삼산면〉

답 내 생각이 어떠냐구요? 난 콧방귀도 뀌고싶지 않습니다. 무슨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를 20대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 불이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라 이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 그러니 불로 심판한다는 말은 자기 마음이 심판을 한다 이 뜻이지 이 세상을 불로 망가뜨려 심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무슨 세기 말이 어떻다해서 예언을 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다 소인입니다, 소인배.

노스트라다무스가 무슨 말을 했고 정감록인가 격암록인가에 뭐라고 써놓았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분들이 이 세상의 정기를 알고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알 것 같으면 왜 뒤바꿔 놓지는 못했답니까?

예언대로 당할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기 자식들이 아닙니까? 그래 자기 자식들이, 후손들이 그렇게 당할거라면 죽으라고 예언을 한 겁니까!

언젠가 이라크 사태 때에 그런 말이 부쩍 돌았는데 우스운 일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해 놓을게 아니라 한번 훌렁 뒤집어서 좀 이익되게, 좀 평화스럽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모든 중생이 다 자기와 둘이 아닌데다 세상 돌아가는 근본이 다 인간 마음의 근본과 다르지 않으니 구태여 고정되게 생각할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라면 죽는다고 말하기 보다 차라리 죄다 살리는 걸로 해놓겠습니다. 앞 뒤 없는 피리인데 말입니다. 이건 나쁜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둘이 아닌 도리를 믿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란게 그냥 말하기 쉬워서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산에서 살 때에 먹을게 없어서 소나무 속 껍질을 먹을 양으로 껍질을 벗겨내는데 고만 진이 흐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벗기질 못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살려도 자비고 죽여도 자비라고 했습니다만 나무 껍질을 벗기더라도 그 나무와 내가 둘이 아니게 하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살생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풀 한포기 벌레 한 마리라도 함부로 하겠습니까? 작은 벌레라도 죽게 될 순간이면 몸부림을 치고 막 뜁니다. 그걸 제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죽여도 자비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라크 얘길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저만 살겠다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제 욕심대로 하겠다고 기름을 막 쏟아부어서는 바다를 더럽히고 물고기며 새들을 다 기름범벅으로 죽이더란 말입니다. 그걸 보았을 때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싶어서 참 속으로 '폐만' 사태가 아니라 너희들 패망사태로구나 했습니다.

모든 생명을 내 생명 같이 여기는 마음이라면 불바퀴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명 •야간 ○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회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명 •통신 ○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명 •야간 ○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명 •통신 ○명		

2. 학 교 연 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심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전 형 방 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접수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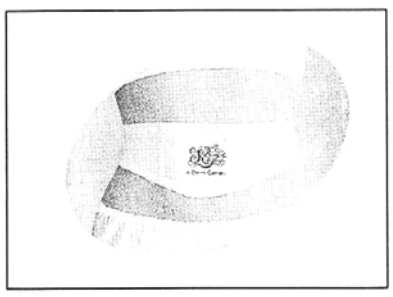
본교 : **511-2026~8**
조계사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궁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두통 · 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괙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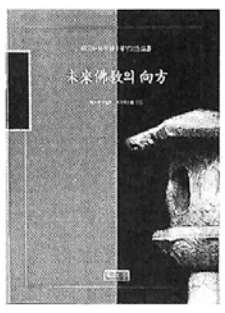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이성시대 가고 開悟시대 온다"

목정배교수 화갑논총 '미래불교의 향방' 발간





◇목정배교수

24일 출판기념법회

유식사상 인공지능분야 접목 '눈길'
교학·선·과학·예술등 논문 53편 수록

지난 40년간 불교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온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의 화갑기념 논총 〈미래불교의 향방〉이 나왔다. 목교수의 서언(序言) '미래불교의 향방'을 비롯해 그동안 학연을 맺어왔던 소장학자의 논문등 53편이 실려 있으며 오는 24일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논총 출판 기념법회가 열린다.

이 논총은 △불교의 역사성과 보편성 △불교교리의 변천과 그 발전 △화엄·천태·정토 그리고 선 △한국불교사상의 이해 △계율과 윤리 △불교와 과학 그리고 예술 △세계로 미래로 등 7장으로 구성됐다. 불교사상·역사·교리·종파·선·계율·과학·예술·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다룬 이 논문집은 소장학자들의 참신한 시각이 돋보인다.

목정배교수는 '미래불교의 향방'에서 이성과 과학의 시대에서 자연을 통찰하고 자성하는 개오(開悟)의 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미래불교를 광명의 불교라고 말한 목교수는 현대과학이 일으킨 재난이 인간의 생명, 즉 빛을 빼앗아갔다고 지적하고 생명이 말살된 미래는 암흑이라고 지적한다.

미래불교는 연기론과 중생주의(Sattvaism)가 인간의 정식적 바탕을 제공하며 자비행으로 생명의 횃불을 다시금 피울 수 있다는 것. 목교수는 이것이 수광불이(壽光不二) 사상 즉 코스모부디즘(Cosmobuddhism)이며 미래불교의 향방을 가름할 불교적 생명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만교수는 '불교의 유식(唯識)사상과 인식(認識)과학'에서 인식과학은 현대과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인식과학은 불교의 유식사상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교수에 따르면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유식사상을 염두해 놓기 때문. 유식사상을 연구하는 유식학은 현재 컴퓨터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인간의 사고, 인지, 기억 등과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내면적 요소들을 먼저 연구해야 한다.

이교수는 "불교의 유식사상은 바로 인간의 내면을 관(觀)하는 것으로 인지과학과 많은 유사성은 갖는다"고 말하고 "인간의 사고한계는 기술의 한계를 가져온다. 불교의 유식사상을 잘 활용하면 과학의 한계를 넘어 정신의 새 지평을 열고 개인이나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승불교의 자력수행과 타력신앙에 관한 연구'에서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화엄경에서는 스스로 닦는 자력수행과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는 타력신앙 방편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둘이 아닌 不二관계로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해주스님에 따르면 석존의 근본정신이 육바라밀을 실천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고 가르친 화엄경에 나타난 보살도는 '회삼귀일'이라는 것. 따라서 중생은 부처님과 보살행원에 힘입어 괴로움이 소멸되고 부처님 세계에 갈 수 있게 된다. "대승에 와서 자기 구제만이 아니라 중생 구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자력수행의 확대가 타력신앙의 확산까지 수반하게 된다"고 한 해주스님은 자력이 곧 타력이고 타력이 곧 자력인 자타불이력의 보살도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학술회의가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5백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세계 승단의 교학·수행체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불교 교학체계 개혁 계기 삼자"

'세계승가 수행체계' 학술회의 분석·수용 '관건'

지난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세미나는 세계각국 불교의 교학·수행체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혜원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교학과 수행에만 연구주제를 제한해 승단과 사회간의 비교가 부족했다며 "이 연구를 토대로 한국불교의 교학체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원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은 "변화하는 사회변화에 맞춰 승가교육체계도 당연히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만큼 종단에서도 제도적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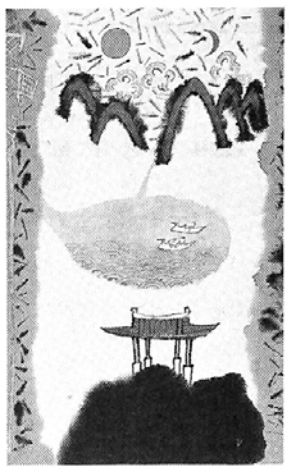
가산불교문화연구원 기획연구실장 현원스님도 "한국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도약의 계기로 삼기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연구팀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산불교문화원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묶어 7백쪽 분량의 논문집을 발간했다. 학술회의 주제인 〈세계 승가공동체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를 표지어로 삼고 있는 이 논문집에는 스리랑카(일중) 태국·미얀마(정원) 중국(정엄) 대만(덕조) 티벳(소남갈첸) 일본(지인·지관) 유럽(현문) 미국(진월) 한국(종호) 등지의 교학·수행체계에 대한 조사-연구논문 총 10편이 실려 있다.

法數로 배우는 불교

〈9〉

삼계(三界) (上)



◇이영수作 〈마을 앞에서〉

나고 죽음 거듭하는 중생의 세계

탐욕 있는곳 '욕계'…선악따라 육도로 나눠
선업 쌓고 선정 닦아야 '색계' '무색계' 도달

불교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지칭하는 말로 삼계(三界)라는 표현을 쓴다. 삼계는 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중생들의 세계를 차원에 따라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로 분류한 말이다.

여기서 계(界)란 인도어 다투(Dhatu)에서 나온 것으로 본래는 계층, 기초, 요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능엄경에서는 방위,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한다.

먼저 욕계는 탐욕의 세계로 식욕, 음욕, 수면욕과 같은 욕망이 치성한 곳이다. 이곳에는 고통이 한량없는 지옥세계에서부터 아귀세계, 축생세계, 인간세계, 수라세계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스물여덟층의 천상세계 가운데 여섯 천상세계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의 색계는 물질의 세계로 욕계와 같이 탐욕은 없으나 미묘한 빛깔과 형체를 지니고 사는 곳이다. 이곳에는 앞서 말한 스물여덟층의 하늘세계 가운데 일곱번째 하늘세계로부터 스물네번째 하늘까지가 속해져 있다.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무운천, 복생천, 광과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의 열여덟 천상세계가 여기에 소속된다.

끝으로 무색계는 물질이 아닌 세계로 욕망과 형상도 없이 순전히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사는 곳이다. 역시 스물여덟층의 천상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나머지 네 종류의 천상세계가 이에 속해져 있다.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소유천, 비상비비상천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같은 삼계 가운데 욕계는 중생들의 선과 악을 행한 경중에 따라서 태어난다.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지으면 지옥 아귀 축생같은 고통세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을 많이하고 복을 지으면 인간, 수라, 여섯가지 천상계의 복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이 계를 받아 나쁜 일을 범하지 않고 깨끗한 행만 지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욕계의 여섯 천상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색계와 무색계는 이와는 좀 다르다.

이곳은 착한 일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태어나지 못한다. 착한 일도 착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선정을 닦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만큼의 집중된 정신력을 쌓았느냐에 따라 좀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도달할 수 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수행방법이 아니더라도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요가나 신선도와 같은 정신집중을 통해서도 삼계의 최고하늘인 비상비상천에 태어나게 된다. 소승불교의 성자인 아라한을 제외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도달하는 곳도 여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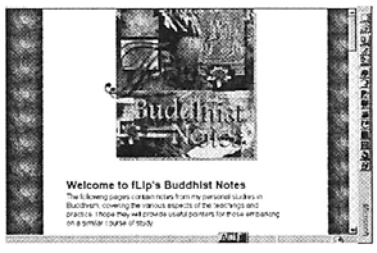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용어 정리…부처님 일대기 삽화도 볼만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노트

영국의 한 청년 F.리프(23)가 인터넷 상에 '불교노트'(Buddhism Notes)를 개설하고 자신이 불교를 공부하며 배운 것을 정리·공개하고 있다.

'불교노트'(Buddhism Note)는 지난해 12월 개설되어 브리테니커, 웹스터, 롱맨 등의 사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불교 어휘를 일목요연하게 정의해 놓고있다. 리프는 이 사이트를 '불교노트'라고 한 것 처럼 런던불교학회에서 정의한 '불교의 12계율'을 비롯해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며 불교 입문자들이 꼭 배워야할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중에는 존 스네링(英)이 기록한 〈불교편람〉(런던刊)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각(大覺)과 脫교리·포용력·불교의 자유탐구·수행법·수계 등을 요약해 놓고 있으며 부처님 일생·중도·사성제·팔정도·지혜·도덕(sila)·명상(samadhi) 등의 해석도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 여행기간동안 미얀마에서 수집한 텅린콕(Tung Lin Kok)의 70여종에 이르는 부처님 일대기 삽화도 진귀한 볼거리. 사이트 주소는 'http://www.geocities.com/Tokyo/Towers/3268/bnotes01.stml'이다.

경주시 문화재조사단 운영

매장문화재 전문발굴기구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경주시에 설립된다.

경주시는 고속철도건설 및 역세권 개발, 경마장 건설 등 각종 공사로 인해 급증하는 문화재발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장급 단장과 10명의 발굴인원으로 구성된 자체 발굴조사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조사단은 공개입찰과정을 거쳐 경주시내의 매장문화재 발굴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전통과학기술센터 설립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전통과학기술센터(센터장 최주박사)를 설립해 국내에서도 각종 문화재들의 성분분석과 복원이 가능해졌다. 전통과학기술센터는 첨단기기를 이용 문화재에 전혀 변화를 주지 않고 불화나 서화의 분석은 물론 종이 표면에 남아있는 성분을 추적해 각종 경전들의 글자도 복원한다. E.P.M.A라는 기계는 철과 청동 등 주조물의 성분과 구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불상이나 범종 등 금속공예도 쉽게 복원할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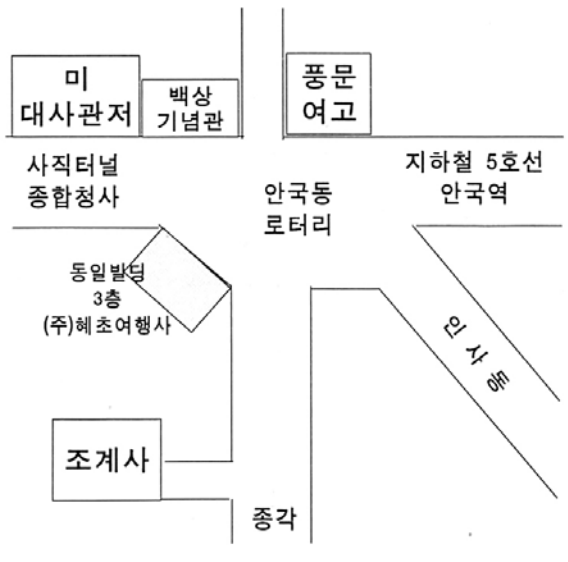
혜 초 여 행 사 확 장 이 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주)혜초여행사가 조계사 옆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계기로 더욱 더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合掌



※ 찾아 오시는 길

Royal Nepal Airlines 네팔 항공

한국 총판매 대리점 계약

※ 항공권 예약, 발권 업무 개시 ※

기념특전 1. 카트만두 1박 숙박권 제공
2. 인도 네팔 비자 무료 대행
3. 인도, 네팔, 티벳 여행자료 제공

성지 순례의 출발지 — 네팔
히말라야의 관문 —— 카트만두

네팔, 인도, 티벳 여행은
이제부터 네팔 항공으로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요!!

불교 성지순례, 항공권
해외 여행, 신혼여행

혜 초 여 행 사

문의전화 733-3900(代)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3층

호주불교 급성장 '숨은 일꾼'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7〉

그렘 리올



남부 웨일즈불교평의회 발족
불교외호 앞장…안락사법 폐지운동도

시드니 근교 불교도서관 건립
불서 3천여권·명상실 등 갖춰

90년대 초 호주정부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0년동안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 총인구중 19만8천5백20명이 불교신자로 불교교세가 예전보다 400%나 증가했다고 밝혀 세계불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처럼 호주불교세가 급증한 데는 남부웨일즈불교평의회(Buddhist Council of New South Wales)의 그렘 리올(Graeme Lyall, 66) 회장의 남모를 원력이 숨어 있다.

시드니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리올은 호주국립大에서 아시아계 유학생들과 학창시절을 보내며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호주는 1879년 중국불교가 최초로 전해졌지만 1950년대까지도 포교원이나 단체가 전무했다.

당시 시드니에서 다마디나 스님이 유일하게 불법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 스님은 중국과 스리랑카에서 공부하고 스리랑카에서 수계받은 미국인 비구니스님이었다. 리올은 스님을 찾아갔다. 당시 다마디나 스님은 리오 버클리(L.Berkeley)를 비롯 8명의 호주인에게 불경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에게도 함께 공부하길 권유했다. 이 인연으로 그는 불교를 깊이 공부할 수 있었고 버클리와 함께 1953년 시드니의 옥스포드街에서 호주 최초 불교단체인 불교협회를 결성했다. 이 협회는 초창기에는 교리강좌·명상교육·〈불교뉴스〉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했다.

불교협회는 다마디나 스님 외에도 호주를 방문한 나라다 스님(스리랑카) 티틸라 스님(버마) 등의 고승들의 지도를 받으며 법회와 포교를 계속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는 "불교협회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나라다 스님은 '마음의 수행'이란 주제로 명상을 가르치고 짧은 게송으로 끝맺었다. 이 법회에 참여한 5백여 호주인들은 다소 이색적인 것을 느꼈지만 벅찬 감동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당시 호주불교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것은 언어장벽이었다. 인도-차이나반도전쟁의 막바지였던 70년대에 이르러 베트남, 티벳,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아시아계 스님들이 호주로 대거 이주해 왔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포교에 곤란을 겪은 것. 그는 아시아 스님의 이민·정착·의사소통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불교적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 1982년에 그는 불교협회와 시드니大 불교학회(Unibodhi)를 통합하고 동아시아 이주민의 정착과 종교생활을 돕기 시작해 1985년에 호주불교 발전을 위해 남부웨일즈불교평의회(이하 '평의회')를 발족시켰다.

평의회는 먼저 호주 내에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대중방송에 대한 모니터부터 시작했다. 1985년 한 방송광고에서 부처님의 이미지를 코미디化한 것을 지적하고 광고주와 법정싸움을 벌여 공식사과를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평의회는 호주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불교단체로 발돋움했다.

최근에는 영국국교회 주교의 불교비하 발언에 대해 평의회가 주축이 되어 호주불교계의 단합으로 공식사과를 받아내 또다시 주목받았다. 주교가 호주국영방송의 프로그램 'Return to Paradise'에서 "불교는 사이비 종교이다. 호주에서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평의회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존재하는 호주의 정신적 조화를 깨뜨리는 말"이라며 호주윤리위원회에 이 둔제를 제소했다. 윤리위원회는 영국국교회와 불교계와의 중재자리를 마련했고 "영국국교회 주교의 공식사과를 권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 호주에서 윤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불교계의 위상을 짐작케 한 사건이었다.



◇ 1996년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을룽공시 남천사에서 개최하고 남부 웨일즈평의회 회원들과 기념촬영한 그렘 리올(왼쪽).

시드니 근교의 불교도서관 역시 평의회의 성과물. 이 도서관은 지난 1984년 중국·빠알리어·영어版 대장경을 비롯해 불서 3천여권과 열람실, 명상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개관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은 점차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했다.

리올은 이때 캄보디아·티벳불교계를 설득해 도서관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갑자기 급증한 아시아계 이민으로 테레바다(원시불교) 티벳불교 대승불교 등 산개(散開)된 호주불교계의 융합까지도 이루었다. 이외에도 평의회는 국제연합이 1987년을 '평화의 해'로 지정하자 시드니大에서 '평화를 찾아서'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불교이념을 소개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드니에서 다양한 종교가 모여있는 호주의 종교적 평화를 염원하는 시가행진을 전개해, 종교를 초월한 1천여명의 호주인이 참여하는 성과도 얻었다.

리올과 평의회의 눈부신 활동은 결국 남부웨일즈州 총리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불교가 가르친 윤리, 철학, 지혜는 여지껏 호주국민이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남부웨일즈 시민들은 인내하고 친절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호주정부는 이제 백호주의를 버리고 다문화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남부웨일즈에 정착한 티벳,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베트남 등과 같은 다양한 불교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곳 남부웨일즈야말로 호주정책을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곳입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게 했다.

그렘 리올은 요즘 안락사법의 위헌소송을 준비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이 시행되고 있는 호주에서는 이 법에 대한 찬·반 양론의 대립으로 떠들썩하다. 그는 "안락사법은 불교의 가장 근본 계율인 불살생(不殺生)의 도리를 거스른 죽음의 문화"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불교계와 가톨릭계를 주축으로 한 종교연합청문회를 개최해 호주에서 안락사법을 꼭 폐지할 것"이라며 쉼없는 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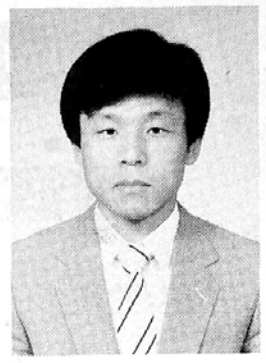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





◇시드니에서 개원한 남부 웨일즈불교평의회의 현관 전경(왼쪽). 오른쪽 사진은 태국불교계가 운영하는 불교서점 모습.

나의 수행일기



류우석 〈원자력연구소 연구원〉

끼마다 공양기도 가족신심 다져
어린시절 할아버지 독경소리 내 삶의 자양분

어린시절 나는 새벽 잠결에 들리는 할아버지의 독경소리에 항상 잠을 깨곤 하였다. 독경을 하시는 할아버지에게서 경건함과 당당함을 느끼곤 했다. 또 인근 절에서 들려오는 새벽 범종소리는 어린 나에게 뭔가 사색의 시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하여튼 종소리는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자라왔기에 어릴 때 특별히 법회를 나가거나 교리공부를 하지는 않았고 또 각별히 종교를 가져야 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렇지만 불교는 항상 나의 옆에 있었고, 나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었다.

성인이 되면서 다양한 종교와 또 다양한 문화양식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한때 방황도 했다. 다행히 좋은 인연이 닿아 모임이 이루어지고 같이 신행생활을 하며 다시 불교가 자연스럽게 나의 삶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자라자 곤혹스러운 일들이 하나씩 발생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통된 생활습관을 지켜나가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신행활동으로 손쉽게 선택한 것이 공양기도다. 핵가족 사회에서 식사시간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음식이 준비되고 식탁에서 잠깐 공양기도를 같이 하는 동안은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합일되는 따스함을 느끼게 된다.



삼귀의로만 진행된 기도시간은 잠깐이지만 그 인연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나의 할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새벽 독경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지만 식사시간에 공양기도를 함께 함으로써 불교와의 인연을 자연스레 심어줄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불교에서 식사전에 하는 공양게송이라는 기도방법이 있는지도 몰랐던 터라 삼귀의로 공양기도를 대신했던 것이다.

처음 공양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가족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척 서먹하였다. 처음엔 혼자 마음속으로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을 외고 식사를 하다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아이들에게 삼귀의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기독교식 기도를 배워 왔다. 어느날 식사시간에 아이들이 삼귀의를 외지 않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나는 무심코 넘겼다. 그러더니 며칠뒤에는 유치원에서 배운 기독교 기도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유치원에서 배운 기독교식 식사기도와 집에서 해온 공양기도가 달랐으니 아이들도 혼란을 느낀 것이다. 그러다가 유치원 쪽을 택한 것이다. 선생님의 위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다.

당황한 사람은 나였다. 선생님의 말씀을 기도를 소리내어 하도록 권유했다. 아이들이라 금방 따랐다. 이내 공양기도는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기독교식 기도를 배워 왔다. 어느날 식사시간에 아이들이 삼귀의를 외지 않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나는 무심코 넘겼다. 그러더니 며칠뒤에는 유치원에서 배운 기독교 기도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유치원에서 배운 기독교식 식사기도와 집에서 해온 공양기도가 달랐으니 아이들도 혼란을 느낀 것이다. 그러다가 유치원 쪽을 택한 것이다. 선생님의 위력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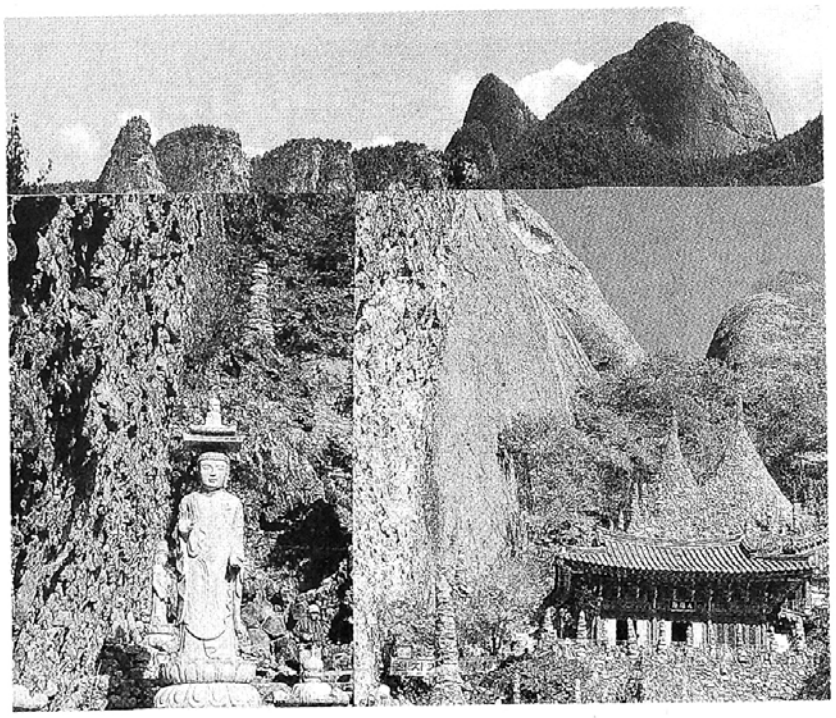
당황한 사람은 나였다. 선생님의 말씀을 제일로 치는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렇다고 유치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처음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라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이들에게 타종교를 달리 이야기할 수도 없어서 기도방법의 다양성을 알려주었다. 식사기도에는 유치원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있고 우리 집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있는데 유치원도 우리 집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집의 방법이 더욱 더 소중하다고 말이다. 그러니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의 기도노래를 하고, 그외의 다른 곳에서는 집에서 하는 공양기도를 하라고 설명을 하고서야 다시 공양기도를 시작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심어주는 방법도 더욱 적극적이라야 한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다. 사회환경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 가족은 그 후 절에서 정식으로 공양게를 배웠다. 지금도 식사시간에는 다함께 삼귀의와 공양게송으로 공동의 인연을 가꾸어 가고 있으며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한국역학대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바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교육기간 : 6개월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담학

3.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입학금 및 수강료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희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도대학 유학알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5-3 해광 B/D4층
대표전화
(02)423-6446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교학품(敎學品) ②

學先爨母 학선단모
率君二臣 솔군이신
廢諸醫從 폐제영종
是上道人 시상도인

먼저 어리석음 끊기를 배우고
임금이 두 신하만을 거느려
여러 관리를 다 물리치면(번뇌 망상 물리치면)
이것이 훌륭한 도인이다

學無朋類 학무붕류
不得善友 부득선우
寧獨守善 영독수선
不與愚偕 불여우해

도를 배움에 친구할 이 없고
좋은 길벗을 얻지 못하거든
차라리 혼자서 선을 지킬 지언정
어리석은 무리와 벗하지 말라

樂戒學行 낙계학행
愛用拌爲 애용반위
獨善無憂 독선무우
如空野象 여공야상

사람이 비록 백세를 살지라도
삿된것 배워 뜻이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바른법을 받아 애씀만 못하다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奉火修異術 봉화수이술
不如須臾頃 불여수유경
事戒者福稱 사계자복칭

사람이 비록 백세를 살지라도
불을 받들거나 다른 도를 닦으면
그것은 잠시 잠간동안이나마
계율 섬긴 이의 복덕만 못하다

能行說之可 능행설지가
不能勿空語 불능물공어
虛僞無誠信 허위무성신
智者所屛棄 지자소병기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말하되
할 수 없는 것에 빈 말하지 말라
거짓으로 꾸며 진실하지 못하면
지혜로운 이의 버림을 받는다

學當先求解 학당선구해
觀察別是非 관찰별시비

"백세를 살지라도 뜻이 바르지 않으면 정법받아 따르며 사는 하루만 못하다"

계행을 즐기고 수행하는 길에
굳이 짝을 만들어 무슨 소용이랴
혼자 잘 닦아 근심 없으면
저 빈 들판의 코끼리 같은 것을

戒聞俱善 계문구선
二者孰賢 이자숙현
方戒稱聞 방계칭문
宜諦學行 의체학행

계행과 수학이 고루 잘 갖춰질 때
둘 중에 어느 것이 나은가
계행이 배움을 북돋아 일으키니
마땅히 자세히 배우고 행하라

學先護戒 학선호계
開房必固 개폐필고
施而無受 시이무수
(功行勿臥) 늑행물와

먼저 계율 지킴을 배워서
여닫기를 반드시 굳게하고
베풀되 받지 않으며
힘써 행하되 눕지 말라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邪學志不善 사학지불선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精進受正法 정진수정법

受誨應誨彼 수체응회피
慧然不復惑 혜연불부혹

배움에선 먼저 바르게 알고자 해야하니
잘 관찰해 옳고 그름 가리고
옳은 이치 배웠으면 곧바로 남을 가르쳐
지혜가 다시는 미혹되지 않게 하라

彼髮學邪道 피발학사도
草衣內貪濁 초의내탐탁
朦朦不識眞 몽몽불식진
如聾聽五音 여롱청오음

머리풀고 삿된 도술배우거나
풀 옷 입은 채 마음이 탐욕에 흐리면
아득하고 아득하여 알지 못한다
마치 귀머거리 세상소리 못듣는 것같이

學能捨三惡 학능사삼악
以藥消衆毒 이약소중독
健夫度生死 건부도생사
如蛇脫故皮 여사탈고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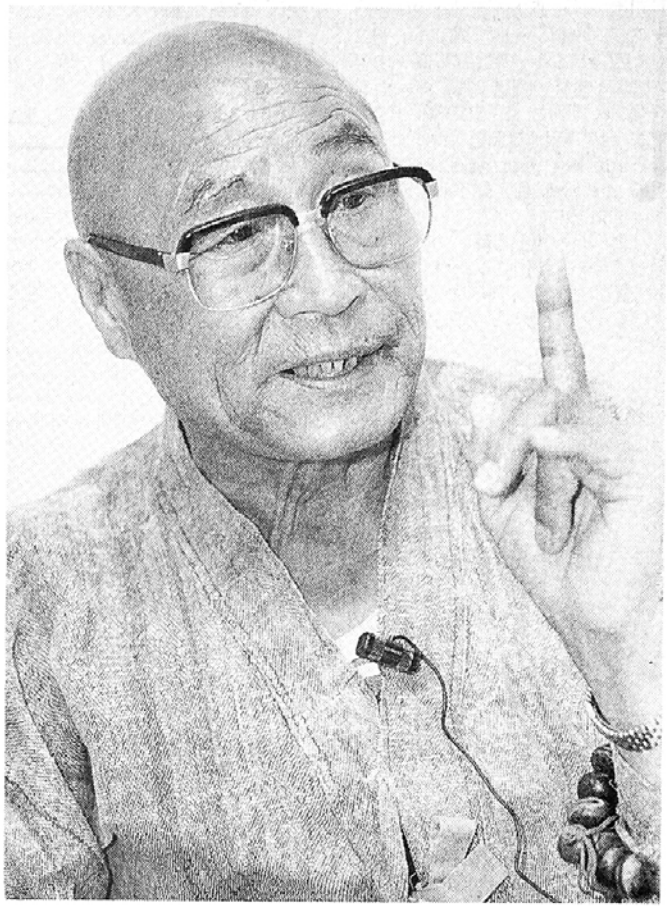
배워서 능히 삼악 버리면
약으로 온갖 독을 씻어내는 것
굳센 이는 생사넘어 해탈한다
마치 뱀이 낡은 껍질 벗는 것같이

龍 眼

큰스님 수행한담

"일속에 수행이 있고

응 담 스 님 〈조계종 원로의원〉



· 1914년 충남 서산 生
· 1933년 용음스님 은사로 출가
· 1942년 금오스님 계사로 비구계
· 충남 서산 망일사 주지 역임
· 現 수덕사 서당 주석

'천지가 생기기전 본래 내마음 어떤것인가' 마하연서 이 화두 들다보니 서서히…

내 수행이야기를 듣고 싶다구요. 그렇다면 이것부터 들어보시오. 업보라는 말 많이 들어 보았지요. 짓는만큼 스스로 받게 되는것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귀때기 한대 때리면 때린 만큼 받게되는 것 말입니다. 누구든지 받게 되는 것이 인과입니다. 이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육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 설화가 생각납니다. 과거에 홍도비구가 있었습니다. 홍도비구는 무량겁동안 수행에만 정진했습니다. 어느날 홍도비구는 몸이 아파 소나무정자 밑에 누웠답니다. 그런데 소나무 삭정이 하나가 떨어져 그만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좀 누워서 쉬려고 하는데 삭정이가 떨어져 내몸을 다치게 하느냐며 진심(瞋心)을 냈는데 그때 몸이 뱀이 됐답니다. 이 이야기는 수행자들은 진심을 내지 말고 수행에만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홍도비구는 한번 진심을 내서 뱀이 됐는데 진심을 수없이 낸 우리들은 왜 그대로 일까요. 그것이 의문되거든 한번 물어요. 어찌 홍도비구는 진심 한번냈는데 뱀이 됐고 우리는 진심을 많이 냈는데도 뱀이 안됐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홍도비구는 광겁(曠劫)으로 수도해서 곧 부처가 될 수행자입니다. 그랬으니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즉 홍도비구는 무량겁동안 수행을 해 티끌만한 허물이 없고 다만 진심 한번 낸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보를 받은 것이지요. 반면 우리들은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업보를 지어왔고 지금도 육도에 매일 들락 날락하기 때문에 당장 인과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생을 비롯 세세생생 업보를 받게 됩니다.

이 몸뚱이가 죄를 짓고 죽었다면 하룻낮 하룻밤 사이에 만번죽고 만번사는 것입니다(一日一夜 萬死萬生). 생사를 능히 해탈할 만한 도를 얻어야 죽고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생사를 해탈하면 일체고뇌가 없습니다. 수행자라면 생사를 해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이야기 할 것 없이 승려는 물론 속인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생사 즉 죽고 사는 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도록 수행정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됐을때 수행이 됐다고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까. 이제 막 경칩이 지나 계곡에서 울어대는 개구리 소리로 생각해도 좋고 늙은이의 푸념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처님 밥을 공짜로 먹지 않으려고 살았던 얘기라 귀담아 들을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서 하나만 건져도 여러분은 내 나이 90을 덤으로 산 것이 되겠지요.

나는 17살에 부모님과 일가친척을 버리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속가에서는 서당을 다녔는데 특히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여가만 있으면 강가에 나가 낚시질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낚시 하는 친구의 모습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하루는 마음을 굳게 먹고 낚시하는 친구를 찾아갔지요. 친구에게 "아서라, 그 물고기도 살려고 먹이 찾아 온 것인데 왜 그 물고기를 죽이려 하느냐"고 다그쳤지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고 낚시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밥짓고 빨래하는 일도 공부죠 작은일 제대로 못하면 큰문에 못들어요"

옛 고서에 따르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낚시를 즐겨 했답니다. 그러나 강태공은 곧은 바늘을 사용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이 없어서지요. 이는 낚시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못할 지언정 산 물고기를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내말을 안듣더니 결국 그 친구는 파도가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았어요. 아무리 살리려고 애를 써도 부질없었습니다. 같이 동무하고 놀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암담하더군요. 그때부터 삶이란 이렇게 무상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지요. 불현듯 '내 몸뚱이도 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죽지 않는 비법을 찾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분서주 하던중 어떤 사람이 그 죽지 않는 방법이 절에 있다고 일러 주더라구요. 그래서 인근 절에 찾아 가서 스님께 물었지요. "스님, 여기 죽지 않는 법이 있습니까." "공부하면 죽지 않는 법을 일러 줄 것이다." "공부는 얼마나 하면 됩니까." "많이 해야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하는대로 하면된다." 그때부터 스님따라 공부를 시작했지요. 한달 두달 시키는대로 해도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생각도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신다더니 어찌 지금까지 아무 말씀이 없습니까." "아 이놈아,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해야지 내가 어떻게 일러주느냐"고 하시더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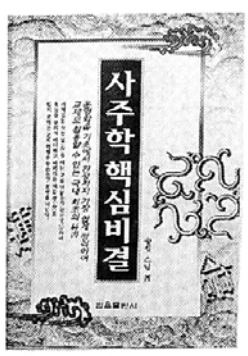
그 즉시 하루빨리 죽지 않는 법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서너군데 더 절에 가서 물어보아도 죽지 않는 법을 일러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구하러 몇달을 다니던중 스님을 한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스님은 "죽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음이 안 죽는 것이지 육신이 어떻게 안 죽겠느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고 하니 "마음을 깨닫고 싶으면 덕숭산 수덕사 만공스님을 찾아 가라. 그러면 스님께서 마음 닦는 법을 일러 주실 것이다"고 하십니다.

그 즉시 수덕사 금선대로 향해 뛰어 갔습니다. 만공스님은 "죽지 않는 법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저 아래 수덕사로 내려가서 용음스님께 물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돌려보내는 만공스님의 모습이 얼마나 온화하고 다정스러웠던지 지금까지도 잊을수 없습니다.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제/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국판/값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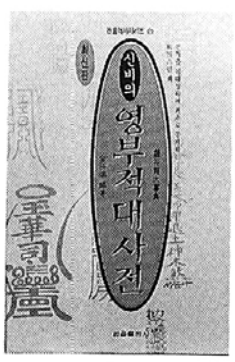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금강경 독송회 도서출판 요하 전화)02-742-0172 팩스)02-766-9305

마음공부베스트 4

그 마음을 바쳐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닦는마음 밝은마음

김재웅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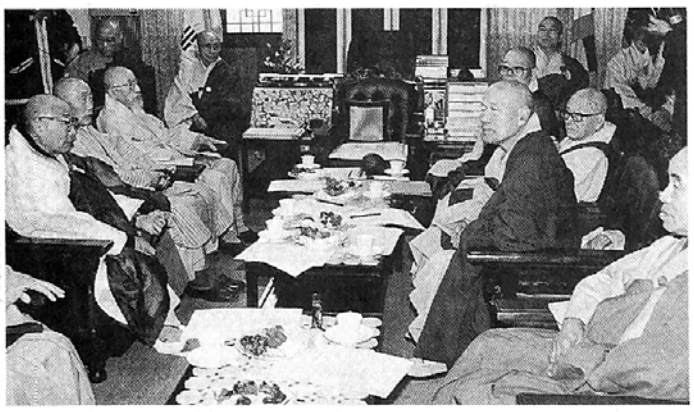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길 가는 모든 이(道人)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 독송회 엮음

큰 스님 수행한담

수행속에 생활 있어요"

"물질이 풍족하면 정신 빼앗기기마련 부처님의 삼의일발 소유 뜻 알아야"



◇지난 10일 조계종 총무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원로회의에 참석한 응담 스님(왼쪽에서 첫번째).

"죽지않는 비법 알려면 마음을 잘 닦아야 합니다"

누구도 공부대신할 수 없으니 '진리에 의지하라'

용음스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이야기를 하니 "그렇지, 불교에서 말하는 불(佛)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생사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을 잘 닦고 안닦고에 달려 있지. 여기서 중노릇 잘하면 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또 질문했지요. "스님,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잘 닦는 것입니까." "시키는 대로만 수행하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한 소임이 공양주였습니다.

공양주 생활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콩을 많이 섞어서 밥을 했는데 내가 하면 이상하게 콩이 익지 않는겁니다. 그러니 난리가 났지요. 어떤 놈이 이렇게 성의없이 밥을 했냐고 말입니다. 결국 큰방으로 불려가 혼쭐이 났어요. 그리고 콩밥하는 법을 가르쳐 줍디다. 그 방법대로 했더니 콩도 잘 익고 밥맛도 좋더라구요.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하니 한 번은 은사스님께서 나를 불러놓고 "밥짓는 것도 죽지 않는 공부야. 밥하는 법을 잘 알면 밥맛이 좋듯이 생활의 이치를 잘 알면 죽지 않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 이치를 터득하니 반찬만드는 일은 물론 공양간 일이 재미가 나더군요. 이런 마음으로 10여년간 후원에서 일을 하니 밥짓고 빨래하는 것이 능수능란해지더군요. 여기저기서 공양간 일을 해달라고 성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공양간의 이치를 알게되니 이제는 마음 닦는 법 즉 참선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원에 가서 참선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수덕사를 떠났습니다. 먼저 오대산 방한암스님께 가서 한철 나고 금강산 묘향산은 물론 남북한 일대 웬만한 사찰은 다 다니면서 그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했습니다. 이같은 만행에서 한암스님을 비롯 백양사 석상스님등 당대에 내노라하는 스님들을 찾아뵙고 공부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곳은 금강산 마하연입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선방이 있는 곳이 마하연 뿐이었을 겁니다. 당시 스님들도 모두 참선하기 가장 좋은 도량으로 마하연을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마하연에 들어가서 열 다섯명의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시간이 나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했습니다. 밥짓고 빨래하는 모든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화두들고 참선하는 것만이 수행의 전부가 아닙니다. 수행자라면 일속에 수행이 있고 수행속에 생활이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찌 진리의 큰 문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내가 직접 빨래를 하고 있는데 시봉하는 스님이 "빨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이놈아 시봉할 시간 있으면 공부나 더 열심히 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런 데다 낭비를 하려고 해" 라고 야단쳤지요.

나는 스님들이 공부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는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수행자가 됐는데도 게으르고 방일한 스님들에게는 반드시 야단을 치고 호통도 쳐야 합니다. 기본도 안되어 있으면서 선지식인 양 흉내나 내는 것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야단을 잘 치니까 저절로 무서운 스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덕숭산 호랑이'란 별명이 붙었나 봅니다. 그저 원칙대로 할 뿐인데 그걸 무섭다고 하면 그것도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

요즈음은 물질이 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물질이 넉넉하면 그 물질에 정신을 빼앗기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세속사람들도 물질이 풍족하면 정신을 빼앗기기 마련인데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부처님이 삼의일발(三衣一鉢)만 소유하라고 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집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구두를 신고 다니는 스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절집안이란 물질은 부족해도 정신이 점점 풍족해져야 잘되는 법입니다.

마하연에서 수행할 때 화두를 하나 들었습니다. 천지가 생기기 전에 본래 내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것이냐 (天地未生未前 是甚麼), 이것을 일러주시더라구요. 이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니 서서히 터득이 됩니다. 즉 본래의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는 그놈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이치를 깨친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꾸 자꾸 수행을 해야 하는 법이지요. 이치를 조금 알고나니 참선이 수월해지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모르면 아무 생각없이 공부하라고 도리어 내가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표(有表)한 것이 있느냐, 싶어요. 유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마음자리 하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어찌보면 마음자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마음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 또 하나 생겨나거든요. 생(生)이 있어 사(死)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를 잘 깨달으면 둘이 없는 법입니다. 생사가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하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달을 때 내 일(수행)을 다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없지만 하나는 있는 것이어서 혹시 전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부 없다면 무기공에 떨어져 만겁을 수행해도 깨달을 시일이 없어요. 하나는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의 도리를 알기위해 수행참구를 하다보니 어느덧 90이 다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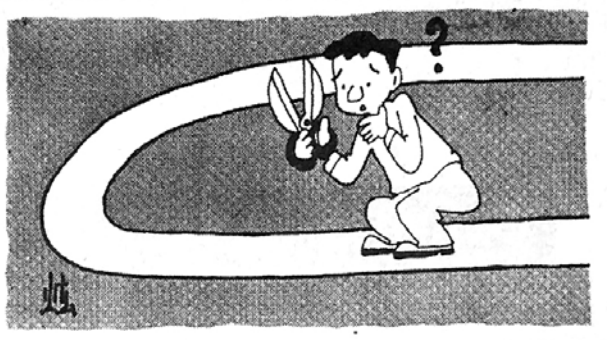
이 몸뚱이 해탈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연이라는 것이 이런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전생에 짓고 나온 인연따라 육신이 소멸되는 법인데 말입니다. 그 인연이 다 될 때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인연이 다 됐다고 해도 죽지 않는 것은 오직 마음자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 죽지 않는 법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소동파, 백낙천, 유의민 등은 천하의 문장가입니다. 문장대사도 이놈(마음)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렸다는 한나라 무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에 그 육신의 흔적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육신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몸뚱이 성할때 이 놈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놈 하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구니의 설이지 불교의 진리는 아닙니다.

수행자는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도 덮고 땅도 덮는 이 자리 곧 마음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한참 때 해야지 늙어서 깨닫고져 하면 몸뚱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수레가 깨지면 다니지 못하고 사람이 늙으면 닦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참으로 죽고 사는 이치를 잘 알고 위법망구(爲法忘軀)하여 이놈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법을 일러드리지요.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진리에 의지하라' 고 하신 말씀 그대롭니다. 부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아난을 비롯한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아무리 훌륭한 부처님도 대신 공부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공부는 자기자신이 해야 비로소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108

김 용 운

불교와 수학 ②

무한이란 무엇인가

數의 모임 부분과 전체 1:1 대응가능

화엄경의 '일즉다 다즉일' 논리와 비슷

종교는 생명의 의미를 태고이래의 생명의 불씨로부터 영겁의 미래에 이어지는 전생명의 흐름에 투영해서 생각한다. 생명의 시작과 끝에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이 있다. 우선 생명흐름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라는 생명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날 로마 법황은 전세계의 최고급 과학자들을 모아 천지창조에 관해 솔직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 과학자들은 많은 논의 끝에 드디어 하나의 결론을 얻었으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대폭발(Big Bang)에서 시작되었다는 논의의 결과를 법황에게 알렸다. 그러자 법황은 즉각 "좋다, 그 빅뱅(Big Bang)을 가능케 한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했다는 말이 전하고 있다.

처음의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을 것이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생명의 이어짐은 결국에는 직선적이다. 유태·기독교에서는 처음 시작을 천지창조, 그리고 마지막의 끝점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불교적 사유에서는 처음에 빅뱅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면 그 하나님을 존재케 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그 시작에 대한 물음이 계속 소급해서 이어간다. 이 자명한 논리 앞에 어떤 지성도 맞설 수 없게 된다. 이 순환 논리를 끊기 위해 단숨에 신비주의의 틀에서 절대자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시작도 끝도 없는 원환의 생명관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선다.

이 논리적 구조가 현대 수학의 무한소, 무한대를 비롯한 수많은 개념과의 일치점을 갖게 한다.

불교 철학은 이 세상에서 숨쉬는 것과 그것이 살고 있는 환경을 포함하는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여러 얽힘, 즉 연기와 그 결과인 업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리에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출발점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의 시작이 없다면 끝도 없다. 그리하여 세계의 시작에 대한 물음은 무의미해진 것이다. '시작은 무시(無始)로부터 발생했다'는 언뜻 비논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명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공간은 원이다. 원 둘레 위의 한 점을 끊어 시작과 끝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점을 끊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답이 없다.

현대 수학이 처음 무한론을 수립한 것은 G. 칸토르의 집합이론에서부터 였다. 처음 인간의 수학은 유한만을 다루었다.

1, 2, 3,
1, 2, 3, 4, 1, 2, 3, 4, ……n.,

모든 것은 이런 간단한 수 체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 철학자가 있다. (즉, 피타고라스 "모든 것은 수") 이처럼 간단한 수의 모임을 확장하면 어디까지 갈까.

1, 2, 3, …… n……

아무리 유한 세계를 고집해도 인간의 이성은 마침내는 무한의 숲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무한이란 무엇인가! 1, 2, 3, …… n……을 보자. 부분이 전체와 1대 1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즉 전체와 부분이 같아질 수 있다. 다음의 대응을 보자.

K_1=1, 2, 3, 4, …… n……
K_2=2, 4, 6, 8, …… 2n……
K_3=3, 6, 9, 12, …… 3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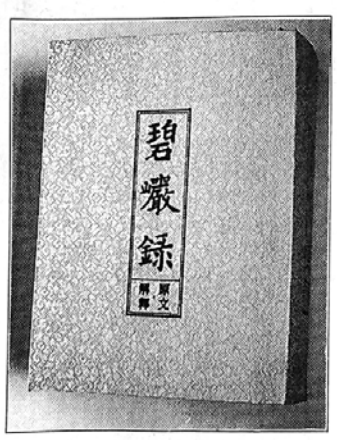
〈화엄경〉에서는 이 사실을 "한 티끌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말한다. K_2, K_3는 K의 일부분인데도 K와 1대 1의 대응이 가능하며 같은 정도의 무한개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것은 곧 불교적인 "다즉일 일즉다(多卽一 一卽多)"의 논리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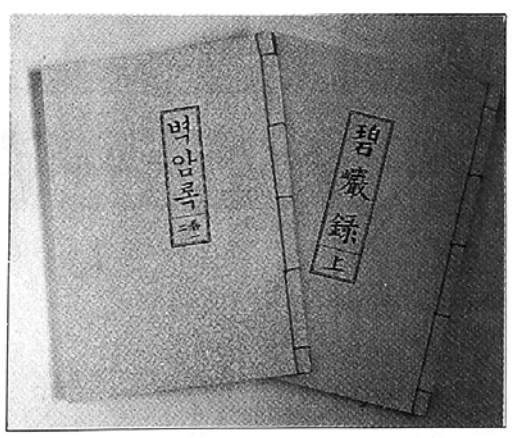
불교는 유태·기독교, 이슬람교와는 달리 교리 또는 교리의 창시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나 귀의(歸依)가 아니다. 스스로의 자각을 바탕으로 타인들과도 어울려 '진실한 지(知), 또는 삶,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종교다. 불교는 무한을 기반에 두고 철학적·과학적인 경향을 지니며 이점에서 현대 수학의 논리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 譯解





碧巖錄
:중국 宋나라의 원오(圓悟)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評唱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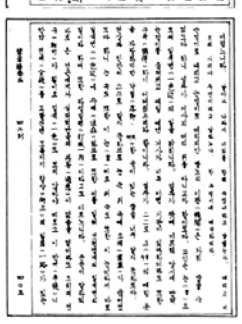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3월중 출간예정

先주문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故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738-6270, 735-7202 팩스:733-1016

고은 불교대하소설

떠나는 처녀들

사바세계 남쪽 섬부주의 한 작은 섬 무욕도에서 사람 하나쯤 꿈꾸다가 죽은 것이 무슨 사연이겠는가. 우주 전체가 아니더라도, 섬부주의 한 반도국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곳에는 무욕도랑 창건승려인 근본 없는 인담과 우녀 그리고 상을 소석들만 남겨져 있다. 인담은 대해의 시체를 혼자 떼배에 실어다가 바다 저쪽의 파도더미에 밀어내고 돌아와 혼자 방안에서 나올 생각 없이 며칠동안 입 다물고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런 인담을 건들지 않았다. 우녀도 두 처녀 행자들도 마치 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무욕도는 무언의 섬이 된 것일까.

이럴 즈음 조선반도의 여기저기를 떠돌던 수월이 다른 떠돌이 묵객이나 보부상 패거리 몰래 다니는 떠돌이 행상 따위와 어울려 다니다가 북관에서 호랑이를 만나 동행자를 잃은 충격으로 얼이 빠져 영영 제 정신을 되찾지 못하는 얼간이가 되어 천덕꾸러기 노릇을 하던 중 안변 지경의 길가에 널부러진 송장이 되고 말았다.

그 할 역시 수미산 둘레의 바다 속에 있는 아수라세계 같은 데서는 한갓 티끌도 아닐 터이다. 바다에 던진 밤 한톨이 되는 비유도 걸맞지 않다. 누군가가 외쳤다. "보라!"

수미산이 솟아오른 북쪽 바다 밑에 가로 세로 8만유순의 성채가 있는데 그것은 그 북쪽바다의 넓이와 깊이 그대로이다. 그런 곳에 외치는 소리 따위가 들릴 까닭이 없다.

거기에 작은 성들과 강당 그리고 바다 속의 해초와 산호들로 이루어진 동산까지 갖추어져 있다.



이 아수라계에서 그 악명을 떨치고 있는 자가 라후라아스라이다. 그가 제 머리를 33천이나 해와 달을 떼어다가 제 귀고리로 만들어 달고저 하거나 하늘의 여인(天女)을 그리워한 나머지 바다밑의 한 구석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다 위 아스라한 수미산을 오르기도 하는데 그 때마다 햇빛에 눈이 부셔 하늘의 여인을 볼 수 없어서 오른손으로 해를 덮어버렸다는 말도 있었다.

그것이 일식이었다.

달을 덮어버리기도 하였다. 그것이 월식이었다.

아무튼 이런 해 하나 달 하나 그리고 별들을 더하면 그것이 1세계를 구성한다.

이 1세계가 1천개에 이르는 세계가 소천세계이고 그 소천이 바로 1천을 말한다.

이 1천으로서의 소천이 다시 1천개로 모인 우주가 중천, 중천은 1백만개의 세계가 모인 것이다.

다시 그 중천세계가 1천개 모여 대천세계를 이루는데 대천은 곧 3천이다. 3천이란 1천의 3승(乘)이어서 10억개의 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이 3천대천세계는 어느 세계 하나를 남겨두는 일 없이 소멸될 때는 일제히 함께 소멸되고 생성될 때는 일제히 함께 되는 그런 광대무변의 공동체로서의 우주인 것이다.

바로 이 3천대천세계의 밖으로 붙어있는 색계의 2·3·4선천(禪天)의 하늘 세상과 그 위의 무색계는 전혀 딴 세상도 아니다.

다만 무색계는 넓이를 가지지 않으므로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무색계의 유정(有情) 생명체가 있으므로 시간은 초월한 것이 아니다. 무색계 생명체들의 수명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3천대천세와 색계 무색계들의 세계가 오로지 단일의 우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구사론(俱舍論)의 한계에 앞서서 다른 경전들은 소천세계가 1천의 해로부터 1천의 범천(梵天)까지 밖에 포함하지 않으나 중천세계가 되면 1백만의 해에서 1백만의 범천과 다시 1천의 2선천을 아우른다고 한다.

"아아!"

대천세계에 이르면 10억의 해에서 10억의 범천계, 1백만의 2선천, 1천의 3선천의 초물질의 세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는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부처님의 처소를 찾아라!"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일이 한없이 간절한 것일진대 가까스로 무색계 위에 나타나는 부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허깨비일지 모른다.

"아아!"

그 누구의 입이 있다면 그 입에서는 무력한 감탄 밖에 나올 것이 없다.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온갖 중생이 사는 세계 아닌가.

다름 아니라 죽은 대해의 제8식은 이런 3천대천세계의 우주와 3계의 우주에 대한 이제까지 생각하거나 경험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우주에의 진입으로 그 자신의 힘이 곧 우주의 힘임을 새삼 깨달아야 하였다.

자(自)와 타(他)는 이제까지 그에게는 들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힘이 우주나 다른 생명체의 제8식에 들어있는 그 무형무색의 투명한 힘과 하나인 것을 이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그 투박하고 거친 사바세계 뱃사공의 마음이, 그 무욕도의 개척자 인담의 뒤를 따라다닌 무뚝뚝한 늦깎이의 뜻이,

> 죽은 대해의 제8식은
> 경험해 본적 없는 우주에 진입
> 자신의 힘이 우주의 힘임을…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사람의 시체를 태워서 내다버리는 그 떼배에 두 여자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짐승들의 동작을 닮은 듯이 과감하게 탔다.

두 사람은 아무런 보퉁이 하나 없고 걸망 하나 없는 빈 몸이었다. 그런 빈몸과 빈 마음이 되어 그들의 정신을 하루하루 닦을 수 있었던 섬을 떠나는 것이었다.

어떤 순간적인 합의의 용기도 어떤 오래된 계획도 아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여일전 두 사람이 서로 여자에게 있어야 할 생리가 거의 같은 무렵에 끊긴 것을 고백하다가 그들의 마음 깊이 생겨나고 있던 섬에서의 탈출까지 의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해탈의 징조인가 생리가 끊긴 두 여자는 떼배에 몸을 실었다

무욕도는 그런 대해를 우주의 어딘가로, 수미산의 어딘가로 보낸 뒤 텅빈 섬이 되었고 그곳을 진작 떠난 방탕승 수월의 객사 소식을 듣지 않았음에도 최소한 인담과 우녀의 마음 속은 대해를 잃은 것 이상의 허탈에 빠지게 되었다.

모든 행하는 바 덧 없음과 모든 현상에 임자 없음을 말하는 일은 정작 한갓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무욕도는 그런 이야기 없이도 너무나 그런 사실을 불빛이 꺼지면 캄캄한 것 처럼 확실한 노릇이었다.

밤이 깊었다.

대해가 세상 떠난지 두달이 지났다. 아니 여기에서는 앞 까닭이 없는 수월이 길가에 쓰러져 죽은지 두달이 되어가고 있는 어느 날의 가을밤이었다.

상현달은 먼저 수광선 아래로 내려갔다. 밤바다에서 풍겨오는 그 짭짤한 내음 가운데는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이슬의 싱거운 내음도 섞여 있었다.

그런 밤이었다. 육지의 어느 마을에서 첫 닭이 홰를 쳐 운 다음이었다.

두 사람이 마치 서투른 도둑처럼 그 신새벽의 바깥에 나왔다. 상을과 소석이었다.

그렇다면 우녀조차도 그들이 나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인가. 그 놀라운 지각과 감각을 가진 신들린 우녀보살조차도.

두 사람은 이왕 나선 길이어서인지 아니면 며칠 전부터 저희들끼리는 깊이 뜻을 다져서인지 별빛 퍼부어대는 그 우주의 헐줄 모르는 작업 속에서도 그들의 작업에 한가닥 주저도 없었다.

본담 자리를 비껴서서 완만한 바위고개를 넘어갔다. 이제 섬의 남쪽에 있는 요사채 따위가 없는 북쪽의 선착장에 다가갔다.

법화경의 한 대목은 여자도 남자 못지 않게 해탈의 능력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그 해탈 이전에 여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

법화경 제바달다품의 용녀(龍女), 문득 남자로 변한 용녀. 성기(性器)의 국부가 갑자기 쭈그러진 곳에 갑자기 남자의 성기가….

고대 인도의 마누법전(法典)과 같은 여성 절대복종의 독선으로부터 크게 나아간 경지이지만 여전히 남성 본위의 의미를 다 털어내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아니, 비구계 250계에 대해서 비구니계 500계는 또 무엇인가.

상을과 소석행자에게 갑자기 월경이 끊긴 사실은 그들 자신을 약간 당황하게 만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해탈이라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여자로부터 남자로 바꾸어지는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서로 주고 받았다.

그런 생각 말고는 두 가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는 공교롭게 같은 무렵에 병든 것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같은 무렵에 임신이라도 한 것이거나이다.

"임신이라니?"

그것은 택도 없는 생각이었다. 아니 임신 가운데는 상상임신이라는 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따위 상상임신의 원인을 겪은 적도 없었다.

실로 갈매기가 바다 위의 하늘을 나르지 못하게 되거나 바다에 내려앉아 물결 위에 태연자약으로 떠있지 못하는 것 같은 어이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상을은 언젠가 세상을 떠난 효영과의 품속 일이 있었다. 소석은 누가 누구인줄도 모르는 짙은 안개속에서의 일이 있었다. 그녀 역시 품속에서였다.

하지만 상을이나 소석행자가 그런 일까지 서로에게 말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따위 헛된 꿈놀이를 누구한테 말하고 말고 할 노릇도 아니었다. 쥐에게 짤이라도 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듯이 생리에 이상이 생긴 청정한 두 여자는 서로 한통속이 될 수 있었다.

그녀들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계율생활에서 탈락되어 마땅하였다. 여자의 퇴경기 이전에 경도가 끊긴 것은 불구이기 때문이다. 남자도 남근이 발육되지 않은 것이나 15일 동안은 남근이었다가 15일동안은 남근이 오그라드는 것은 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여자한테도 5종불녀(五種不女)가 그런 대상이다.

두 사람은 밤의 밀물때에 맞추어져서 떼배가 바닷가로 잘 나아가는 동안 처음으로 섬 밖으로 나가는 그 두려움과도 같은 설레임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은채 떼배의 삿대를 들어올려 꼭 그러쥐고 있었다.

"이 길이 어떤 길일까?"

"백척간두에도 길이야 있겠지."

그림·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지역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재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화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아·七一一·四二七〇
주·五四三·七二〇六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시·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장재를 말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682-499 조경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466-2116 (夜)216-0307

백자기 분수대 00% 특별할인판매

전문 도예가 작품
(발해도예, 진흥도예)
大 130,000원
中 100,000원
小 75,000원
낙관 보증서 재중
야간 조명등 부착
건조하고 탁한 공기를 신선하고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공급처 : K.C 종합상사
☎ 884-0468~9
FAX 889-6705
관악구 신림본동 11-19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불미불사
사람의 죄부에 모시는 석불, 석탑, 석등(돌)재신, 청동부처님, 청동탑 청동등(청동)으로 조성해 드립니다.
청동불사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사람의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일사를 정해 본인이 직접 찾아 뵙고 원하시는 상호, 도안과 주위 조경 견적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0331)282-2931 · (011)211-2931
삐삐 015-8415-2931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됨을
▷가격 :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스님 염불 전용 녹음실
염불 전용 녹음실
● 세계 최신녹음 장비
● 경력 30년의 녹음기술
● 염불 녹음 하실 스님
● 비용 때문에 망설이신 스님
그러나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도 출가 사문 입니다.
연락처 : 0417)551-1562
신선암 주지 김광덕 합장

귀의 삼보하옵고
하이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게 이해할수있도록
제작한 불교그림동화(한책) 「깨달음의 세계」 (6세부터) 및 단행본 「부처님일대기」가 제작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및 사찰에 필요한 일반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탑전(태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울산(심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영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선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법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최주기 합장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치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백양사 운영·재정 공개
청정도량 신뢰감 초석

교구본사로는 처음으로 백양사가 사찰의 재정과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니 불자된 한사람으로서 환영한다.

조계종은 지난 94년 개혁회의를 통해 이미 종헌으로 재정공개 원칙을 표방했다. 그러나 참여도는 낮다.

시대적인 흐름이겠지만 핸드폰에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스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에서 재정공개를 하는 사찰이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것은 재가불자들에게 때때로 의혹을 사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고 본다.

사찰의 재정공개와 재가신도들의 사찰운영 참여는 사찰이 청정도량으로써의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많은 말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양사의 용기있고 책임있는 행동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모든 교구본사들이 솔선수범해 스님들과 신도들 사이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재정공개와 재가신도의 사찰운영참여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송재용·동국대 사학과 4학년〉

파산위기에 약속지킨 加기업과 '한보'

최근 한보사태로 정·재계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귀감이 되는 외국기업 실화를 소개한다.

캐나다에 갔다가 '정직한 국민 훌륭한 정부'의 전형을 목격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50층의 황금빌딩이 있다. 이 건물은 전체가 금박으로 조성돼 있다. 이 빌딩은 청명한 날이면 황금빛으로 빛나, 배를 타고 바라보면 빌딩의 정경은 장관을 이룬다.

그런데 이 건물이 부도가 났다는 것이다. 한 사업가가 계약을 한 후 곧 바로 금값이 올라 계약대로 짓다보니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금값이 올랐다고 싼 금을 썼다거나 요령을 피워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계약대로 철저하게 짓다보니 부도가 난 것이다. 이 기업은 할 수 없이 정부에 파산신고를 냈고 정부는 정밀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부도의 원인은 금값이 올라서이지 결코 사업을 핑계로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정부는 '이 기업은 우리 캐나다에 꼭 필요하다'며 부도를 막아주고 건물을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한보부도사태와는 아주 대조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는 언제쯤이나 정직한 기업인, 청렴한 관료, 훌륭한 정부가 되어 성실함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는 것일까. 우리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다.

〈법광·수덕사 스님〉



독자사진

자전거 고적답사 자전거 페달을 밟는 아이들의 모습이 맑은 하늘과 어울려 활기차 보인다. 지난 1일 청교련 대구지부를 따라 경주일원으로 자전거고적답사를 나선 딸 석형이가 환경과 문화재보전의 중요성을 깨달은 날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김지숙·경주시 석장동〉

독자마당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불자에게만 상가임대
법주사 결정 '당연한 일'

충북 보은 법주사는 최근 불자에게만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당연한 처사라 생각한다.

어느 곳에 손님으로 가던 객(客)은 주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손님으로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개종을 강요하는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법주사가 임차인들에게 아침예불에 삼천배, 과다한 운력에 시주등 종교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교정재를 이용해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불자여야 하는것 아닌가. 법주사 부처님 정재를 통해 발생된 재물이 타종교 헌금으로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일단 한울타리에 살게된 이상 주인의 요구를 들어 주던가 떠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차제에 법주사에서도 대주민 포교에 대하여 자자포살하길 바란다.

〈천리안 ID : MUJIN337〉

고건총리에게 드리는 당부

화합·신뢰·우선하는 정치를…

먼저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짐을 마다않고 떠맡으신 총리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총리님, 벌써 국정에 대한 구상이 완성되셨겠지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전력해주십시오. 도대체 화합이라고는 없고 서로를 믿지않는 나라의 분위기는 민족의 앞날을 걱정스럽게합니다. 아마도 이 일은 단시간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소신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러다보면 국민들의 불만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런 비판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이제 국민들도 과거의 성장 일변도에 익숙해진데에서 오는 환상은 버려야 할 때가 되었으니까요.

또 '화합'에 관한 당부입니다. 총리님을 신문이나 야당에서는 현정권의 주도세력과 대척관계로 알려진 지역출신이라고 하여 '화합형'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호남출신 총리가 나온다고해서 다른 모든 불화가 사라질까요?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지역차별' 뿐이 아닙니다. 군의 독점시대가 사라지니 특정 지역, 학교출신들이 떼를 지어 온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듯이 보여 또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게다가 현정부의 '특정종교'에 대한 편파적인 정책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갈등유발 요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 매듭을 풀기 난망한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모든 일들의 책임은 첫째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짊어져야겠지만, 각 집단 구성원 모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직전에 총장으로 재임하셨던 대학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재직하셨던 그 대학은 교수나 교직원뿐 아니라 일주일에 단 두시간을 맡고있는 시간강사에게까지도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종교재단이 설립한 다른 학교에서도 정식교수나 교직원 채용시 종교의 동일성여부에 대해 증명서를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강사에게까지 그런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드물뿐만 아니라 지나친 종교편향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그것은 재단의 일'이라고 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는 이런 일들이 국민의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 보신적 없으신지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총리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아마 그 수많은 대국민 갈등유발요인 가운데 최소한 한가지만은 바로잡는데 노력한, '성공한 총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병두·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사무국장〉

'복제 인간시대' …생명존엄성 파괴우려

왕과 원숭이 복제에 이어 사람도 '우연한 기회'에 이미 복제돼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영국의 선데이지가 지난 9일 오보를 한적이 있다.

벨기에의 한 병원에서 산모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시술하던 중 복제인간이 태어났고, 현재 4살로 벨기에 남부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복제는 윤리도덕의 기반이 되는 인간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

만약 선지식으로 존경받고 있는 성철스님이 수도 없이 복제돼 득실거린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천하의 파계승이 선망받게 되는 악폐를 몰고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물론 인간복제에는 내장을 서로 저항없이 이식할 수 있는 등 장점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인간복제의 장기를 강제로 떼어내 다른 인간에게 넘겨주는 것같은 잔혹이 횡행할때 인간성의 황폐 그 위험수위를 넘을 것이다.

기계론적인 생명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관에 의한 새 지평이 열릴때까지 더욱 철저한 전문가의 노력과 우리들의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장동근·대구시 동구 동호동〉

전통·실용성 살린
'통일 법사복' 만들자

95년초 대원불교대학을 졸업했다. 졸업후 법사품수를 받지 않았다. 법사복이 기독교 목사복과 흡사하다는 충격으로 법사고시를 포기했다.

외삼촌이 목사이셔서 어려서 가끔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다. 그때 외삼촌이 입으셨던 옷과 대원불교대학에서 제정한 법복은 너무나도 흡사해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더구나 그 법복을 제작한 곳이 기독교 예배복을 주로 만드는 곳이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요즘 각 종단이나 불교대학 또는 사찰단위로 법사과정 신입생모집이 한창이다. 그 신입생들이 앞으로 법사품수를 받고, 정식 포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더라도 그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디자인과 불자로서의 수치스러움의 이유로 법사복을 입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교만의 색깔을 지니면서 통일된 법사복은 불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성직자로서 예의범절을 갖추게 한다든지, 행동거지에 신중을 기해 스스로 자질향상에 노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뜻있는 불자들이 모여 그 해결책을 짜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제언을 해 본다.

〈임형곤·현대중공업 근무〉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사찰안내
▶ 위 치:강원 영월군 남면 토교리
▶ 대지: 760평 · 건평 108평(법당 30평)
- 대웅전, 요사채, 부속건물
- 관세음보살입상, 탑, 석등
▶ 가격 1억5천(급매)
연락처 : 0373)374-74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천안 신터미널
■ 평수 : 40평
■ 전세 : 3천5백
최고의시설 · 가격 절충
연락처 0418)42-3232

심장병 · 안면기형 · 백내장 환자가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삶을 함께 나누는 사회
작은 정성일지라도 실천으로 옮겨질 때 그 향기 이웃을 감동시킬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헌혈이나 감로심장회 회원이 내는 회비가 고통속에 쓰러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로심장회와 함께 사회봉사에 동참합시다.
나와 이웃이 삶을 함께 나누는 감로심장회를 통해 사회복지 증진의 꽃을 피웁시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사단법인 감로심장회
T. 0591)749-0106
F. 0591)747-0107

포교당안내
■위치 : 대구 달서구
■평수 : 40평 방2칸
연락처 0559)32-9114
32-4845

포교당안내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평 수 : 30평 (법당, 방2)
■보증금 : 1,000만원(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연락처 (0346)68-6553
015-165-4488

포교원 안내
▶ 위 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 평 수 : 36평
■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60만원
■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건강 한증요법
문화 불 한증막
"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
96.11. 5 신장개업
쑥찜, 맥반석 찜질방 겸비
"
피부미용
류마티스 관절염
산후조리
에 좋은 한증 요법
····· 문화 불 한증막 ·····
위치 : 부산시 대연4동 UN묘지 정문 앞
전화 : 051)627-6605
버스 : 25,68,78,34,134 UN묘지 정문앞 하차
이 표 소지자에 입실료 30% 할인. 1/9 ~ 3/31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2백권 돌파

문화사랑 운동 '책으로 앞장'

5백권 목표… "불교문화알리기 큰몫"

작년 출판계 첫 세종문화상 수상

도서출판 대원사의 〈빛깔있는 책들〉시리즈가 오는 4월 2백권을 돌파한다.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불교문화, 민속, 고미술, 음식일반, 건강식품, 즐거운 생활, 건강생활, 한국의 자연, 미술일반 등 9개 분야에 걸쳐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는 대표적인 문고 시리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렵던 시절인 지난 89년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불교문화에 깃든 의미와 우리생활과의 연관성을 사진과 함께 쉽고도 명확하게 설명해내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확실한 색깔을 보여 주는데 일익을 했다.

지금까지 발간된 불교문화 관련 책만해도 〈불상〉, 〈사원건축〉, 〈옛절터〉, 〈요사채〉, 〈불교목공예〉, 〈영산재〉, 〈산사의 하루〉, 〈고승진영〉 등 40여권.

불교외의 분야에서도 우리문화전반에 깔려있는 불교의 숨결을 사진과 글을 통해 소개해 왔다.

민속부문에서는 짚문화, 소반, 복식, 솟대, 전통상례, 장승과 벅수 등 우리가 소홀하게 보아넘겨왔던 전통문화를 담아냈다. 한옥의 조형, 문방사우 등 우리의 옛미술과 다도, 분재, 집꾸미기 등 다양한 취미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기존의 '읽는 책' 개념에서 '보는 책'의 개념을 도입, 원색의 사진과 함께 글도 쉽고 간결하다. 이처럼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독창적인 기획이 돋보여 한글창제 5백돌인 지난해 10월 출판계 처음으로 세종문화상을 받는 등 스테디셀러로서 그 입지를 다져오고 있다.

현재 194권째인 〈옛그림 감상법〉 출간에 이어 앞으로 근대유화 감상법, 연극감상법, 발레감상법, 백두산, 고려청자, 우리나라 궁궐옛그림(가제), 부엌, 사찰요리 등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발간된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를 하나도 빠짐없이 애독해왔다는 불자 김정환씨(종로구 인사동)는 "빛깔있는 책은 한권한권이 모두 소중한 우리문화 백과사전이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출판불황속에서도 상업성에 연연하지 않고 전통문화 확산이라는 전문성을 지켜온 〈빛깔있는 책들〉시리즈는 2백권 돌파를 계기로 당초 목표로 삼았던 5백권을 향해 발걸음을 꾸준히 내디딘다는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는 쉬운 설명과 원색의 사진으로 일반인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화제의 책

각 품별 내용 대의달아 쉽게 요약

유마경 장순용 지음



한글세대에 맞도록 쉽게 번역한 시공 불교 경전시리즈 제1권 〈유마경〉이 나왔다. 재가신자인 유마거사가 부처님을 대신해 설한 법문을 모은 〈유마경〉은 이미 그 문학적 우수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책은 당나라 현장의 〈설무구칭경(說無垢稱經)〉을 토대로 장순용씨가 번역했다.

각 품의 이름을 '제1품 부처님의 세계' '제2품 유마힐의 방편' 등과 같이 한글로 풀어써서 품의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품을 내용에 따라 절로 나누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대의를 달아 읽는 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했다. 또한 각 품의 끝부분에 해설을 실어 어려운 불교용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좀 더 재미있고 깊이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공사 1만2천원〉

대품반야경 중심 바른 신행 길안내

반야불교 신행론 혜담 지음



〈반야불교 신행론〉은 반야사상에 입각한 신행 정립을 꾀한 책. 반야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설하고 있는 〈대품반야경〉을 중심으로 신행의 요체를 신앙론, 반야론, 방편론으로 구성했다. 제1편 신앙론에서는 반야바라밀 신앙의 형태와 공덕을 제2편 반야론에서는 반야바라밀의 실천과 공사상, 그리고 제3편 방편론에서는 보살의 두 날개이자 반야바라밀의 절대면과 상대면인 지혜와 방편 등에 대해 설하고 있다. 불교계의 많은 종단이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반야사상에 입각한 제대로된 신행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반야불교 신행론〉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길잡이가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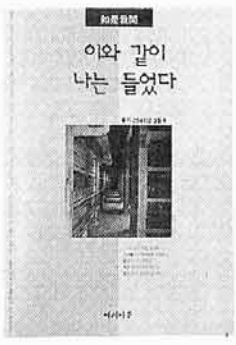
〈불광출판부 1만5천원〉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

월간 불서정보지 탄생

출판·책방 '여시아문'

불교계 최초의 불교도서 정보지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가 3월호부터 새 모습으로 증보됐다. 출판사 여시아문과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만든 〈…나는 들었다〉는 기존의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를 한층 발전시킨 것으로, 점점 늘어나는 불교도서출판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불서읽기에 대한 친절한 길잡이 역할은 물론 미니 교양잡지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 출판계의 화제가 되고있다.



이번호에는 좋은 책 선정위원회가 추천하는 '이런책을 읽자', 2백자로 책읽기, 책 출판의 숨어 있는 재미있는 뒷 얘기를 추적하는 책속에 숨은 이야기-현암사의 '불교대전', 베스트불서 스테디불서, 이 사람 이 책-고은 그리고 내가 가는 금강경 등 책관련 읽을 거리가 풍성하다. 또한 지난해 신문 방송을 휩쓴 전생신드롬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독자광장은 볼만하다. 특집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정 바루공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안내하기 위한 참고도서도 안내하고 있다. '신행을 위한 짧은 글'은 불자들의 신생활에 도움을 주는 상식코너이다.

〈비매품〉(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불교의 심층심리

이 책은 일본 고마쟈와여대 후도타·히사노리가 집필한 것으로 동국대학교 교수인 정병조선생이 우리말로 옮겼고 도서출판 현음사에서 출판했다.

〈불교의 심층심리〉는 불교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제1장에서부터 제8장까지 풀어놓은 유식불교의 역사서적이다.

우리들은 엄핏 불교의 경전을 난해한 한자(漢字)의 나열에 그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중국을 거쳐 들어와 중국에서 번역된 원전(原典)인 한문을 그대로 사용해 한학에 능통한 사람이나 그 이해가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구한 세월을 그렇게 전해온 경전은 그 숱한 세월 속에서 많은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지 못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불자들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불교학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고서는 경전이 지닌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 왔으니 진정한 법이론이 많이 왜곡되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억불사상이 나라를 지배하던 조선조를 겪으면서 한국의 불교는 제자리를 찾지 못해왔다.

송 운 하
〈불교문인협회 부회장〉

개론서이지만 흥미롭게 서술

'유식사상 어렵다' 선입견 불식

근세에 들어와 경전을 국역하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부터 난해하다고만 생각했던 불교 경전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드라마틱한 진리의 가르침인가를 불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다.

〈불교의 심층심리〉를 들여다보면 유식사상의 심층의식을 논리화 하였고 흥미로운 서술로 불교가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있다. 비록 개론서이지만 독자로 하여금 유식세계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해주고 있어 유식이 어렵다고 생각해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에게 유식의 문턱을 무난히 넘게 해주는 책이라 생각되어 감히 추천한다.

〈초발심자경문〉 가운데 '맹구우목' 이라는 어구가 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눈먼 거북이가 지쳐 떠 있지를 못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을 때 마침내 옹이구멍이 뚫려있는 나무판자가 떠가는 것을 만나 그 구멍에 목을 들이밀어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부처님과의 인연이 이토록이나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불서를 만나는 것도 이와같다.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면 깨달음의 세계에 한층 가까이 갈 수 있듯이 불자여러분들도 좋은 불서를 가까이 해서 불법의 정수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기 바란다. 이것은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요즈음 각 출판사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각종 경전이나 불교이론서 및 종교사상서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쉽고 명쾌하게 풀어 발간하고 있는 일도 반갑게 여겨진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힘든 세상 道나 닦지	효 림	가 서 원
4	그까짓 살좀있으면 어때	학 림	여시아문
5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주	이 바 지
6	삼소굴 소식	명 정	극락선원
7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8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9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10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불지사 창립 10돌

사보·단행본등 8백60종 편집대행

사업성보다 불교문화 보급 '우선'



◇김형균 실장

출판대행이라는 불교출판 전문영역을 처음 선보이며 출판문화를 이끌어온 (주)불지사(佛地社, 대표이사 김형균)가 21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불지사는 지난 87년 동국대 목정배 서윤길 교수와 전북대 강건기교수 진흥원 권오현국장 등이 뜻을 모아 6명의 직원으로 출발했다.

당시 불교서적 전문편집대행이라는 일은 획기적인 사업이었다. 불지사는 자본이나 인력이 열악한 출판계의 상황에서 두 가지 요인을 절묘하게 결합시켜 불교출판문화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 〈선립고경총서〉 시리즈 등 그동안 8백여권의 단행본과 논문집, 60여종의 사보·회보류를 편집 대행해 왔다.

지난 92년 폐간위기에 처한 어린이 불교잡지 월간 '굴렁쇠어린이'('동쪽나라' 전신)를 인수하면서 부터 시작한 어린이 포교문화사업도 불지사의 괄목할만한 업적으로 꼽힌다. 투자와 지원뿐이라는 어린이 관련 사업은 잡지발행 뿐만 아니라 어린이전문극단 '동쪽나라' 창설, 연극학교, 국토순례, 아동문학상제정 시상 등 활발하게 전개됐다.

또 불지사가 10년동안 배출한 150여명의 불교인력도 큰 성과로 꼽힌다. 이들 배출 인력은 언론계 출판사 연구원 문화원 기획실 전업작가 등 불교 문화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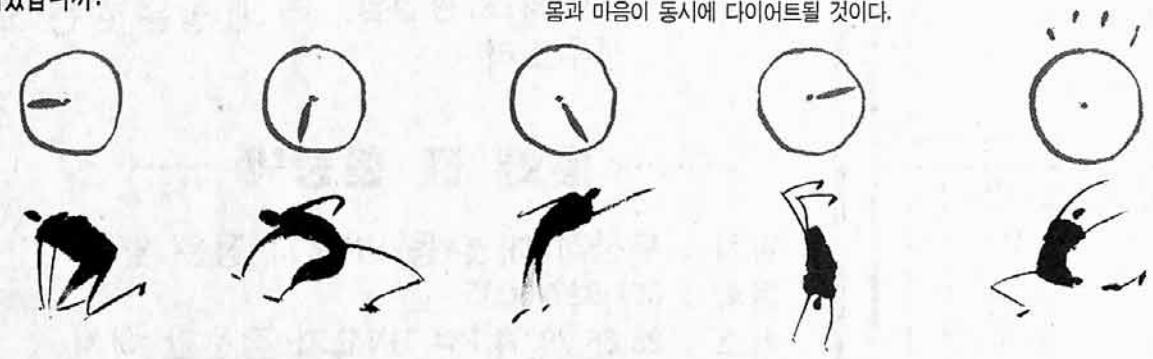
김형균실장(46)은 "불지사는 푸른 10대답게 앞으로도 출판, 어린이문화를 위해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들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값 5,000원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면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팔만대장경 음악으로"

법고·국악·재즈·레게등 동서고금 선율 하모니
김수철씨 작곡…5월부터 테이프·CD로 출간

부처님 가르침을 집대성한 팔만대장경을 국악이나 록 재즈 등의 음악으로 듣는다면 한결 귀에 쏙쏙 들어올까.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음악으로 만들어진다. 오는 5월 호암갤러리에서의 팔만대장경 전시에 맞춰 선을 보이게 될 팔만대장경 테마음악은 민족의 성보 팔만대장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리고 친숙케 하기 위한 인식고취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다. 작곡은 '대중음악계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가수겸 작곡가 김수철씨(40).

국악과 양악이 서로 어울려 이루어질 팔만대장경 테마음악은 모두 4집으로 기획되고 있다. 1집은 법보종찰 해인사소리 모음집. 해인사 대중들의 예불소리를 비롯 간경(看經) 아침종성 아비라기도소리 법고 운판 등 사물과 풍경소리 등 해인사 고유의 20여 소리가 실릴 예정으로 이미 해인사현지에서의 녹음을 마친 상태. 2집은 팔만대장경의 태동, 수난과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장중한 정악위주로 작곡된다. 여기에는 아쟁 대금 등 전통국악기가 사용될 예정. 3집은 보다 대중성있게 청소년위주로 제작되는데 록 재즈 레게 등의 음악형식이 가미되며, 4집은 유럽과 미국등 서구인에게 어필할 수 있게 제작된다.

1집과 2집은 오는 5월초 CD와 테이프로 출시되며 3집은 오는 8월, 4집은 오는 11월 선보인다.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직후인 지난 95년 12월 대장경연구소 부소장 현기스님의 작곡의뢰를 받고 즉석에서 수락했다는 김수철씨는 "팔만대장경이 불교인들 것만이 아니라 전국민의 문화재라는 인식과 세계문화재로서의 소중한 가치인식이 의외로 너무나 미약한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말한다. "대장경이 친숙한 음악으로 표현된다면 누구든지 가까이 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김씨는 "불법의 상징인 팔만대장경의 심오한 숨결과 이를 만든 우리 민족의 슬기를 깊이있고 다양한 선율로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철씨

영화 '서편제'와 88 서울올림픽, 대전 엑스포와 지난 겨울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주제음악 등 큰 대회의 음악은 대부분 도맡아 온 김씨는 범패 등 불교음악에도 조예가 깊다.

'아시아소리변천사'를 연구해 오고 있다고 밝힌 김수철씨는 "팔만대장경 테마음악을 우리 고유음악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대중성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필생의 대작으로 만들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경숙 기자

사찰음식 배우기 '붐'

수효사·관오사등 매주 강좌
비디오·책 등 잇달아 발간


◇대구 관오사에서 매주 화요일 열리는 홍승스님의 사찰음식 강좌.

담백하고 정갈한 맛도 입맛을 돋우지만 성인병이 유행하는 요즘 최고의 건강식으로 치는 사찰음식.

불가(佛家)에만 면면히 이어내려온 사찰음식이 향신료·조미료를 넣지않는 채식위주의 담백하고 독특한 맛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사찰음식강좌가 곳곳에 개설되고 있으며 사찰요리책들과 비디오도 연이어 발매될 예정이어서 사찰음식에 대한 최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서울 수효사(02-313-3060)와 대구 관오사(053-784-3669)가 매주 화요일 개설되는데 쉽게 가르치는 조리법 강의와 강의 사이사이 마음다스리는 생활법문이 곁들여지는 것이 이채.

개국때부터 '날마다 좋은 날' 프로의 한 코너를 장식하다가 인기가 높아지는 바람에 지난 가을부터 단독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선재스님의 푸른맛 푸른 요리'는 매주 금 토 12시 10분부터 방영되는데 몸에 유익한 재료를 사용한 사찰음식 특유의 조리법은 물론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정보가 곁들여져 인기를 끌고 있다.

사찰음식 강의들은 대부분이 향료와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특유의 음식맛을 내는 조미비법과 약이 되는 식물 이용한 음식만들기, 밑반찬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는 사찰음식 강좌에는 각각 40여명 이상의 주부불자들이 참여하며 배움에의 열기를 높여가고 있으며 btn의 '선재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는 '효자프로그램'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청자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사찰음식문화연구소(02-245-0904)는 신도들의 요청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 무애원(주지 설봉)에서 사찰김치를 위주로 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앰버서더호텔 한국요리사인 이서운씨가 강의하는 수효사 사찰음식강좌는 3개월 코스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데 사찰음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정통사찰음식을 배우는 기회. 홍승스님(대구 동화사 부도암)이 맡고 있는 관오사 사찰음식강좌는 매주 화요일 개설되는데 쉽게 가르치는 조리법 강의와 강의 사이사이 마음다스리는 생활법문이 곁들여지는 것이 이채.

한편 강좌개설 붐과 더불어 사찰음식 조리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사찰요리 책들이 권위있는 사찰음식전문가들에 의해 이달말부터 연차적으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btn은 이달말 '선재스님의 푸른맛 푸른 요리' 프로를 엮은 비디오와 책을 펴 낸다. 사찰음식연구가 김연식씨(전통음식점 '산촌' 대표) 역시 우리출판사에서 전통사찰요리법을 알려주는 '사찰음식'을 발간할 예정이다. 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스님은 오는 4월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로 '사찰음식'을 펴 낸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창립15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음식의 개관〉을 발간하는데 제6권째인 '궁중의 식생활 사찰의 식생활' 편을 먼저 올해 후반기쯤 발간한다. '…사찰의 식생활'에는 사찰음식의 이론적 배경, 바루공양의식, 조리법 등 사찰음식이 전반적으로 소개된다.

이경숙 기자

불교희곡 '동승' 영화 만든다

4월부터 선암사서 촬영… 주경중감독 메가폰

어머니에 대한 사미승의 간절한 그리움을 통해 해탈에의 염원을 추구한 불교희곡 '동승(함세덕 작)'이 영화화된다.

최초의 광주항쟁영화 '부활의 노래'를 연출한 감독 주경중씨(씨네클럽)가 메가폰을 쥐게 될 '동승'은 최근 시나리오작업을 끝내고 오는 4월부터 순천 선암사 일대에서 촬영에 들어간다.

1930년대 월북작가 함세덕에 의해 쓰여진 희곡 '동승'은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나 함세덕이 월북작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상연금지되었다가 90년 이후 해금, 지난 92년 극단 연우마당에 의해 연극으로 상연돼 호평을 받았다.

주경중감독은 "불교영화는 지리하고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영상미와 내면연기로 승부를 걸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서 그 진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다.

총 제작비 10억원이 들어갈 영화 '동승'의 주지스님역에는 TV 드라마 '찬란한 여명'의 주인공 동인스님역을 맡았던 영화배우 김갑수씨, 어머니역에는 현재 SBS 주말드라마 '꿈의 궁전'에서 푼수연기로 인기를 얻고있는 이응경씨가 유력하며 어린 동승과 주위 스님들역은 사실감을 살리기 위해 스님연기자를 공모하고 있다. (02)929-1070

기사넘쳐 '불심시심' 쉽니다.

산수화 대가 故 이상범 탄생 백년展

우리의 산하를 우리의 정서에 맞게 표출해낸 근대 한국 산수화의 대가 청전 이상범(1897~1972)탄생 1백주년 작고 2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4월 20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열리는 청전 이상범전은 1919년 초창기 작품부터 작고하기 전 작품까지 시대별 대표작 70여점이 출품돼 한 작가의 독자적인 양식이 확립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해오던 '충무공영정'과 삽화, 인물스케치 등도 함께 전시된다. (02) 750-7856

불미전의 내일


홍윤식

"전통기법 토대 새양식 창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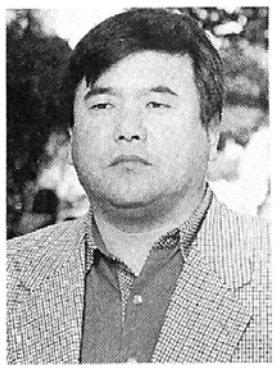
3월19일부터 공평아트센터에서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입상작들이 전시되고 있다. 불미전은 연륜으로는 27년을 맞는다. 불미전을 통해 많은 불교미술인이 배출되었고 불교미술계의 영역이 괄목할 만하게 확충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불교미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본다.

이와 같은 일은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불미전의 심사위원으로서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불미전의 의의가 어디에 있으며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낀다.

우리나라 불교미술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전통미술을 대표한다는 데 있다. 그러기에 불미전의 의의는 그와 같은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데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전통을 계승한다면서 지난날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본다. 이것은 잘못된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통의 계승이란 지난 날의 문화양식을 그대로 전승하는데 있지않고 부단한 발전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신라시대의 불교미술, 고려시대의 불교미술, 조선시대의 불교미술 등은 각기 그 양식을 달리하면서도 우리의 문화전통을 잘 계승하여 온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에 불교미술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을 모방하는데 있지않고 전통적인 기법을 오늘의 양식으로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데 있다. 다른 한편 현대적 기법에 의한 현대불교미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작품의 공모도 불미전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것은 오늘의 우리 사회에 불교미술의 전통이 어떻게 올바르게 계승되고 있느냐 함과 함수관계를 갖는다. 즉 불교미술의 문화전통이 굳건히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새로운 불교미술에 대한 주제와 기법의 방향 설정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불교미술이란 전통적인 기법이 되었건 현대적 기법에 의한 현대미술작품이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이 불교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움의 세계를 창조해 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불교미술공모전은 보다 확실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제주문화 발전위해 음성포교"

제주불교음악인협 **홍영희** 초대회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음악활동을 하고 상호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후원함은 물론 음악단체 조직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제주불교음악인협의회 초대회장 홍영희씨(제주 대기고 교사)는 불교음악을 통한 지역문화 발전과 자비 화합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포교사로서의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취임소감을 대신했다.

지난 2월 27일 태고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가진 제주불교음악인협의회에는 극락사 관음정사 바수밀다 합창단 등 도내 15개 합창단 지휘자 및 연주자 3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불교음악인들이 모여 모임을 결성하기는 제주가 처음이다. 2년전 비슷한 성격의 모임이 만들어졌으나 회원들의 참여저조로 유야무야됐다. 제주불교음악인협의회는 대외적인 첫 사업으로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대합창제를 기획하고 있다.

"음악은 만인의 공통언어입니다. 봉축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제주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성공양을 나누는 거룩한 법석을 펼치고 싶습니다."

제주=정성운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봄이 오는 소리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大地를 적시는 빗방울 소리
가슴에 와 머문다.
조그만 풀잎 끝에도
따뜻한 生命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찬바람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고
살얼음 끝 녹아 내리는
청아한 여울 물소리

버들 가아지도 겨울잠 깨고
잎망울 터트리는 속삭임
상큼한 봄 내음
생기를 머금고
봄볕 따스한 온기가
大地를 포근하게 감싸며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노래하며 바람은 춤을 춘다
내 그리움
또한 그속에 머물고


원장 이자임

大후,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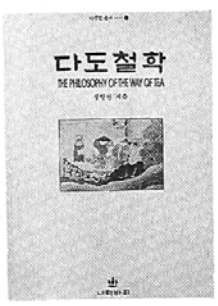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너럭바위
너럭바위 茶 생활 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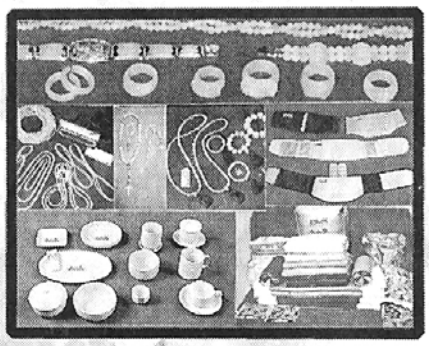
다생활 총서-❶
한국 차 문화
정영선著
값: 8,000원



다생활 총서-❷
다도 철학
정영선著
값: 7,800원

도서출판 너럭바위
Tel (02)563-4538
Fax (02)562-7198
계좌번호:(농협)366-02-011872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홧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잡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玉山家 옥만을 꼭찜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귀한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是空玉家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1만평 대지에 건평 2천8백평 규모의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기공식이 지난달 25일 네팔 룸비니현지에서 열렸다.

대성석가사 대웅보전 기공

"네팔 룸비니 동산에 한국사찰 위용"

화엄사 각황전 본뜬 2천8백평 규모

네팔 룸비니동산 한국절 대성석가사(주지 법신) 대웅보전 기공식이 지난달 25일 도문스님(대각사 주지) L.D.T 네팔사원 주지등 1백여경의 한국신도와 2천여명의 네팔 현지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03년 준공예정인 대성석가사 대웅보전은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만평 대지에 건평 2,800평이다. 또 식당과 회의실로 사용하는 2층 현대식 건물위에 국보 제 67호인 화엄사 각황전 모습을 본뜬 법당과 장경각을 올린 모양으로 건립된다. 한편 법당앞에는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모형의 석탑을 건립하여 한국사찰의 위용을 자랑한다.

룸비니개발위원회로부터 국제사원구역내의 부지 1만평을 장기임대한 대성석가사는 95년 12월 기공한 제1요사채를 최근 완공했으며, 그동안 룸비니 성지를 찾은 한국인 3천여명과 외국인 3만여 참배객들에게 숙식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해왔다.

주지 법신스님은 "룸비니동산을 찾는 참배객들에게 숙식 등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한국국민 1인 1등 켜기운동을 벌이고 연례행사로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룸비니동산에서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석가사 건립을 추진중인 대각사주지 도문스님은 "탄생성지 룸비니불사에 이어 △성도지 붓다가야 △초전법륜지 녹야원 △주석처 기원정사 △입멸성지 쿠시나가라 △신라호법도량 천룡사 △백제초전법륜지 대성사 △신라초전법륜지 아도모례원 △가야초전법륜지 봉림사지 △용성조사탄생지 남원생가 복원등 국·내외 10대성지 정화불사에 주력하겠다"며 "불교중흥과 종교중흥 인류중흥을 위한 성지가꾸기에 불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원〉

"자비의 손길에 감사"

BBS '거룩한 만남' 3백회 축하법회 27일 호암아트홀

불교방송을 대표하는 간판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은 '거룩한 만남' 3백회 특집 축하행사 및 음악회가 오는 27일 오후3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지난 91년 4월 5일 제1회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방송돼 온 거룩한 만남은 이웃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보살의 마음으로 진행돼 왔다. "거룩한 만남은 눈물과 진한 감동이 있다"는 것이 청취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중생의 고통을 부처님의 자비로 감싼다는 취지로 불자들이 모금한 성금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0여억원에 이른다. 거룩한 만남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는 방송이후 밀려드는 온정의 손길로 총1억여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기도 하는 등 거룩한 만남은 불자들에게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거룩한 만남 1회때부터 3백회까지 한 회도 빠짐없이 성금, 의류, 의약품, 식료품 등을 기탁한 우정스님과 장농 밑을 저금통삼아 던져넣은 동전을 연말에 선뜻 성금으로 내놓은 이경철씨 등의 사연도 들을 수 있다.

우정스님(명덕사 주지)은 "수행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언론에 오르는 것을 마다하면서 "타종교의 사회복지사업을 불교도 배워야할 것"이라며 이웃돕기를 강조했다. 스님은 탑골공원 노인무료급식을 비롯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숨은 복지가로 알려져 있다.

1부 기념식과 2부 축하음악회로 열리는 이번 축하행사는 이계진, 이선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며, 범패의 동희스님, 수화공연의 동국대 손짓사랑회, 소프라노 김금희, 테너 신동호씨등이 출연 자비의 한마당을 펼친다.

강지연 기자

한국불교 제주 광명사 알림도량

중문 관광단지에 20억 예산

목조법당·선방등 올말 완공

스님과 불자들이 제주도에 가면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하며 관광도 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 중문관광단지에 자리잡고 있는 광명사(주지 진주)는 사찰인근 5백m 이내가 관광공원용지로 고시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한 대작불사에 착수했다. 광명사가 위치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특급호텔과 해양수족관, 동양최대 식물원,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대형쇼핑센터 등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종합휴양단지로 조성중인 신흥관광타운. 그런만큼 관광객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사는 현재 20억 예산으로 올해말 완공예정인 법당과 승방 조경사업을 진행중이다. 또 지하 1층 지상 3층 1백평규모의 불교홍보교육관을 올해말 착공하여 불교문화 불교용품을 전시, 내·외관광객들에게 불심을 심어주고, 한국고유 전통건축양식을 소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광명사는 팔작지붕을 기본으로한 전통건축양식의 목조법당(40평) 불교홍보교육관(1백평) 선방(40평) 사천왕문 종각 승방 대중방 해수관음상 탑및 석등 조성, 사찰조경사업등을 펼치고 있다. 또 불사가 완료되는대로 전면개방되는 광명사는 종단을 초월해 제주도를 찾는 스님과 불자들이 사찰에 기거하면서 관광과 수행을 겸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를 추진중이다.

주지 진주스님은 "광명사가 중문숙박시설단지 선녀교 천제연폭포 중문해수욕장을 하나의 코스로 잇고 있어 내·외관광객들의 참배가 날로 늘고 있다"며 "이들 관광객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는 포교도량으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사는 1차 사찰조성사업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유치원 청소년수련원을 설립하여 후세교육장으로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제주=김원우 기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한국의 美를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천년불심이 스며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같은 의미를 대중속에 심고 확대하기 위해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교문화 테마여행'을 기획했습니다. 매월 주제를 갖고 문화재 전문가와 함께 떠나는 이 행사는 종교적 특수성과 예술적 보편성이 만나 이룬 민족문화의 핵심으로 다가가는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3월 테마여행—내소사

한국의 色·線·面 (목조각의 조형미와 단청)

내소사는 변산반도 남단에 자리잡은 고찰로 연꽃 국화 등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꽃무늬문살로 유명한 대웅보전(보물 제291호)과 고려시대 동종(보물 제277호)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않고 나무들을 서로 교합하여 건축한 대웅전은 조선후기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천장의 꽃무늬와 뒤벽의 백의관음보살도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또한 일주문에서 천왕문으로 이어지는 쭉쭉 뻗은 전나무길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나무터널로 속진을 씻어줍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채석강도 들릴 예정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3월 호남명찰로의 테마여행에 독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참가 안내

◇출 발
3월 23일(일) 오전 7시 · 조계사 앞
◇안 내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
◇회비
3만원(사찰에서 점심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조흥은행 계좌 322-04-221460(선정호)

4월 27일 석굴암 남산—한국인의 얼굴
5월 25일 대흥사—禪茶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BBS 경리사고 종회 조사특위 구성될 듯

사건 발생 2달을 넘기고 있는 불교방송 경리사고가 뾰족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회차원의 불교방송 조사특위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여연)'는 지난 11, 12일 이틀간 불교방송 관계자 면담과 회계재조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으로 달아난 피의자 김선도씨와 불교방송 재단사무국 송병육국장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 2건이 발견됐다.

그러나 조사위가 본격 조사작업을 위해 방송국에 요청한 삼일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세무보고서, 장비구입관련 거래처 리스트 등의 자료가 불교방송 경리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조사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위원장 여연스님은 "사건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는 회계장부와, 은행통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방송국측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비자금 등 불교방송 자금흐름에 대한 파악이 현재로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종회차원의 특위를 꾸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한 15일 회계재조사를 모두 마치고 검찰과 구속중인 김현안씨(전 불교방송 경리과 사원), 그외 관련자를 직접 만나는 등 사건 조사의 방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무상기증된 불교광주방송 건물의 임대료와 방송시설장비료 착복등의 내용이 담긴 '불교광주 방송의 부정행위'에 대한 문건 1부, 불교대구방송 운영지원금 5천만원 추가지원에 대한 본사와 불교대구방송의 '비밀확인서' 등이 발견돼 불교방송 경영의 난맥상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이은자 기자

BBS노조 "재단이사회 불신임 검토"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선상신)는 지난 10일과 12일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고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두 번에 걸친 자체감사에도 불구하고 종회가 진상조사를 나올 정도로 이번 사건을 방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수습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오는 1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등 강력한 대응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진 책임물어야" BBS직원 98%

불교방송 노동조합이 지난 4일~6일까지 불교방송 종사자(노조원, 비노조원 포함) 7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8%가 이번 경리사고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7.1%가 상무를 포함한 사장과 재단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했으며, 대답자의 84.6%가 최근 3년간의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군포교 지원사격

"군법당에 오는 신병들은 초코파이를 제일 좋아해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그나마도 나눠주기 힘든 실정이죠."

15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신병교육대 군법당을 돌며 군포교에 심혈을 쏟고 있는 송춘희 법사(59·백련장학회장)는 군법당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신병들을 교회나 성당에 뺏기고 있다며 안타까워 한다. 군법당에 갈 때마다 절편과 시루떡을 해가는 송법사는 "각부대 군법당에 매달 10만원씩만 지원이 돼도 사병들에게 부족하나마 간식을 나눠줄 수 있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한다.

지난 10일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는 5만여 장병불자에게 '부처님오신날 위문품'을 보내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모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 예산확보라는 난제가 남아있어 종단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최근 개신교 군복음회가 올해 활동예산을 지난해보다 10%인 상된 55억원을, 가톨릭 군정교구청이 지난해보다 30% 인상된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과 비교할 때 1억원의 예산은 '새발의 피'라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 조계종포교원은 군승단에 4억4천여만원을 지원하지만 군불교진흥회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 대부분의 예산은 군법당 건립에 소요되는 실정이다.

반면 기독교계는 군이 선교의 황금어장이라는 인식아래 "21세기를 향한 선교의 교두보, 軍을 공략하라" "복음전선 사수하라" "교회여! 지원사격 개시하라"는 등의 구호아래 조직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교계는 가시적인 포교성과가 나타나는 불사에만 끄달려 눈에 띄지 않는 군포교를 버린 자식 보듯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나마 있는 군불자마저 개종될 판이다.

포교의 황금어장에 계속 뚫어진 그물만을 던질 것인가, 전법의 해를 맞은 종단은 다시 한 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長腦 장뇌 山蔘 산삼

부모님께 효도선물! 뜻깊은 분께 감사의 선물!

삼보귀의 하옵고
대덕스님, 스승님, 부모님, 운동선수 및 견비통, 산후조리,
아픈 불자님께 최상품 산삼을 최적의 가격으로 인연을 맺어 드리겠습니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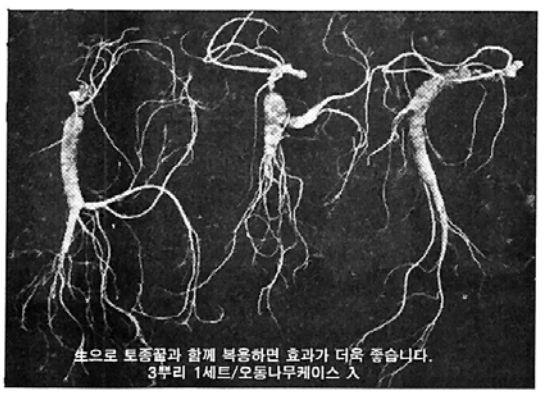
장뇌산삼이란?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봄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346)591-3989



生으로 토종꿀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3뿌리 1세트/오동나무케이스 入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여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부처님오신날 현수막 제작 보급 안내

※ 서울·수도권지역 현수막 설치하여 드립니다. (설치비 별도)
— 초파일 15일전부터 10일전까지 설치(미리 주문하신 사찰에 한해)
■ 90cm×5m 현수막도 있습니다. (35,000원)

귀의 삼보하옵고 국민적 축제인 부처님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 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본 감로기획에서는 현대감각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옥외설치용 장엄물로 불자는 물론 전국민의 시야가 집중된 불교위상의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되어 단청디자인으로 제작 보급합니다.

봉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 조계종 ○○사
■크기/90cm×6m ■가격/40,000원

봉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사
■크기/90cm×8m ■가격/50,000원

봉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축
○○사
■크기/90cm×10m ■가격/6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리본 수동식 100개 25,000원 기계식 100개 40,000원

❖ 부처님오신날 봉축 어깨띠(1장 : 2,500원) 100장 이상 제작시 사찰명 넣어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하는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현불뉴스

전사법 국회법사위에 회부

지난해 12월 국회정각회 의원 전원 발의로 마련된 불교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전통사찰보존법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공보위 소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사법 개정안 심의를 마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법률검토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사찰 임대현황 조사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97년 연중 기획사업으로 전국 사찰 임대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람료 사찰 △4년이상 장기임대 사찰 △토지임대·매각 관련 문제사찰 △임대금액이 표준지가 이상인 사찰 △부동산 보유가 많은 사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송특위등 종회안건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 총무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갖고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125회 정기중앙종회 안건을 채택했다. △96년도 결산심사 △종회규칙안 심의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특위 구성 △원로의원 추천 △불교중앙교원 이사 및 감사 선출의건 등이 주요 안건이다.

불교TV 신임이사 5명 선임

불교TV는 지난 13일 제3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규이사에 진철(조계종재심호계위원), 지광(능인선원 원장)스님과 김광삼(본사 사장), 김의정(만해사상실천선양회 공동대표), 이영숙(모덕의료재단이사)씨등 5명을 선임했다.

이날 태능(불교TV사장), 법공(총지종 통리원장), 신허(표충사 주지)스님을 비롯 7명이 이사에 재선임되는 등 불교TV 이사가 총 24명으로 늘어났다.

소비자 피해구제 협조 요청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안효강)는 지난 13일 서울시내 1천4백2개 사찰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운동 홍보 및 피해구제 안내공문을 발송,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위는 각 사찰에 '소비자피해 접수창구'(전화 (02)3452-7485)를 개설, 소비자보호 활동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승가교육체계 11인위 구성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지난 12일 종무회의에서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승가대학령 등 종단 교육전반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승가교육체계 11인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예술의전당서 종교행사 물의

(주)신원에벤에셀이 지난10일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에 앞서 예배를 올리는등 특정종교 예배장소로 이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예술의 전당측은 "어느 단체든 정치 종교의 목적을 위한 행사내지 공연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을 주최측에 전했으나 신원은 모 국회의원을 내세워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산악인聯 내달 창립

"山行은 信行"…성지순례·생태계 보호 등 '앞장'

불자산악인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영주 성남지역 10여개 불교산악회가 내달중 전국단위 연합체인 (가칭)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추진위원장 손현수)를 출범시킨다. 또한 대전 안동 예천지역에서도 불자산악회가 새로 발족된다. 이와함께 각지역 불교산악회는 이달초 시산제를 시작으로 정기산행을 진행하는 한편, 사찰주변 환경·생태계 보호와 장학금지급,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신행을 펼친다.

지난해 10월 20일 월악산 미륵세계사에서 창립준비대회를 가진 불교산악인연합회는 내달중 창립법회를 갖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불자산악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구심체를 만들 계획이다.

불교산악인연합회 추진위는 이를위해 지역별 불자산악회의 창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미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와 영주불교산악회(회장 김원호)가 대전불교산악회, 안동·예천불교산악회의 발족을 각각 지원 조만간 본격적인 단체로 발족시킬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이선정화 보살이, 안동에서는 안동불교대학이, 예천에서는 용문사청년회가 주축이 되어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부산·대구·성남 등 지역별 불자산악회는 산행을 떠나는 곳에 있는 사찰이나 고아원 등에서의 봉사활동과 환경보호운동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신행단체로서의 면모를 확고히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피골상접한 北동포 도웁시다"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첫 사랑방모임

"깡마른 몸매에 배만 나온 채 맑은 눈을 가진 아이는 결코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녘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의 모습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는 지난 9일 이윤구(전 한국선명회장) 박경서(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국장)박사를 초청, '북한의 식량난 실태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동산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제1회 사랑방 모임을 가졌다.

이날 박경서박사는 "작년 10월 평균 2백50g의 잡곡으로 하루 세끼를 먹던 북한사람들이 올 2월말 현재 평균 1백25g 정도로 그 양이 현저히 줄었다"며 "그 양은 밥 반공기 분량으로, UN에서 국가분쟁을 겪고 있는 난민들에게 지급하는 식량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북한이 큰 홍수피해를 입은 뒤 방문했을 때는 황토 흙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며 눈에 눈꼽이 끼어있고, 콧물이 흐르며 배가 짤뚝하게 불러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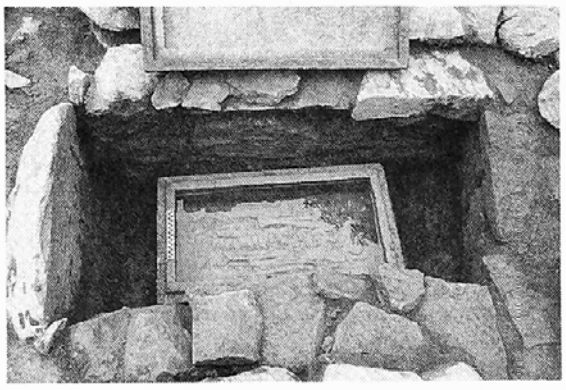
전 UN대사로 활동하며 북한 지원운동을 벌여온 이윤구박사는 남한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동포를 돕는 일에 외국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만약 정부에서 정책적 이유로 나설 수 없다면, 민간차원에서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차 사랑방 모임은 오는 26일 홍제동 정토포교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02)3672-5373

김정은 기자

도선국사 유골 추정 유물 발견

옥룡사 쌍비쌍탑전…석관·통진대사비등 발굴



◇육탈(시신은 야외에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뼈만 추스리는 장례법)을 거쳐 석관안에 놓여진 유골. 도선국사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그 진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신라말 고승 도선국사의 것으로 추측되는 유골과 그의 제자 통진스님의 유물이 발견돼 유골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룡사(전남 광양시 소재) 복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발굴조사를 벌인 순천대박물관(관장 조원래교수)은 지난 10일 백계산 옥룡사 '쌍비쌍탑전(도선국사와 그의 수제자 통진대사의 부도와 비를 보호하기 위한 건물)' 자리에서 통진대사(868~948)의 비석 조각 90여점을 비롯 부도 파편, 기와, 유골이 든 석관 등을 발견했다.

한편, 지난 13일 발굴조사설명회에서 발굴자문위원인 정영호교수(한국교원대)는 유골이 도선국사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순천대 박물관은 유골의 정확한 연대측정을 위해 문화재연구소에 전문감식을 의뢰했다.

정부위탁 직업교육 늘고있다

주부·명퇴자등 대상 무료 기술훈련

교계에 주부 준고령자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위탁 무료직업훈련교육이 늘고 있다.

연꽃마을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대전 법동사회복지관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 무료직업교육인 간병인·가사보조원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대폭 실시한다. 오는 4월 7일부터 마련되는 이번 직업교육은 노동강도가 비교적 낮은 직종으로 생활과 연결된 기술교육으로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수료증이 교부되는 만큼 취업율도 높여 가정과 사회에서 개인실무능력을 갖추는데도 초점이 맞춰진다.

94년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위탁교육실시와 함께 건물관리인 등을 교육해온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올해는 4월 7일부터 4회에 걸쳐 훈련정원 2백명을 1주과정으로 간병교육하며 노인병원 실습후 연꽃마을간병인회에 가입시켜 유·무료간병인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도 5월 26일과 10월 20일 2회에 걸쳐 1백60명에게 간병인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안스님)은 오는 4월 7일부터 3회에 걸쳐 매분기당 40명정원의 가사보조원교육을 마련한다.

이와관련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교계위탁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교육이 사회공신력을 높이고 일반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청소년에 문화의식 심자"

대전 청교련 '문화유산봉사단' 29일 발대

파라미타 '문화재애호단' 4월부터 활동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불자청소년들이 문화재 보호 및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폭넓은 장이 마련된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소장 종실)는 오는 29일 '청소년문화유산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는다. 또 (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도 오는 4월부터 각 분회·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문화재애호단' 활동을 전개한다.

청소년문화유산자원봉사단은 대전시 인근 충남북 지역문화재를 찾아 오는 연말까지 매주 토, 일요일 문화재 주변 정화, 질서계도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또 전국 문화권을 대상으로 열리는 문화탐방캠프와 문화재발굴현장에 직접 참여해 문화향유능력을 기르고,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역사분과 및 문화재분과로 구성되는 파라미타 문화재애호단은 매월 1회 인근 사찰을 방문, 각 사찰에 분포된 문화재를 조사하고, 보전·관리방안을 모색한다. 또 미지정 성보문화재를 발굴, 애호 캠페인을 펼친다.

파라미타는 금년안으로 〈성보문화재 애호활동 지침서〉를 발간, 청소년들의 문화유산지키기 봉사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군불교진흥회 군불자에 위문품 보내기

5월 11일까지 모금운동

군불교진흥회(회장 박상길)가 본격적인 군포교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군불교진흥회는 올해 군불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품보내기 운동을 확대 실시하는등 공격적인 군포교전략을 마련했다.

군불교진흥회는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주관한 '군불자 위문품보내기운동'이 예상밖의 호응을 얻자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모금해 약 5만여 군장병불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군불교진흥회는 각 종단 및 사찰, 불교언론사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5월 11일까지 모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미 봉축위(1천만원), 군불교진흥회 회장단(1천만원), 서석재 정각회장(1백만원), 신한국당불교회(1백만원), 국민회의연등회(1백만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약정받은 군불교진흥회는 지난해(2,150만원)보다 약 5배 많은 예산으로 합장주, 불교소책자, 간식 등을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배포할 계획이다.

후원금납부처=(02)749-8646, 국민은행(093-01-0240-066, 군불교진흥회)

임기보장·보직순환제 실시 촉구

조계종 7직 국장스님

조계종 7직국장스님들이 임기보장 및 보직순환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직지사에서 개최된 전국본사 국장스님연수회에서 제기됐다.

7직국장스님들은 전체연수회에서 "교구본사 국장스님들은 임명장및 임기가 부여되지 않아 특정 국장직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 그외 국장직은 소외시 되고 있다"며 "종무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임기보장 및 보직순환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국장스님들은 소임별 토론을 통해 상설행자교육원의 설립과 행자교육원 집체교육기간의 연장, 사찰관광객에 대한 친절안내, 법사명칭 도용방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직지사=이윤호 기자〉

고침 본지 제118호 1면 '문체장관 송태호'씨 제하 기사 가운데 '고익진옹(前 전남대총장)'은 '고형곤옹(前 전북대총장)'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보도자료 불평등 배분 불기협, 총무원에 질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지난 5일 총무원 해인사 복장유물 발굴 기자회견과 관련해 빚어진 교계신문 불평등 대우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12일 총무원에 발송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질의서에서 △배포했던 교계신문의 보도자료를 회수한 행위 △기자회견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불상이 한국일보에만 보도된 경위 등 4개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마음 뿌리에 물을 주자

주인공을 찾다가도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안으로 놓기 이전에 밖으로 끄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뿌리에 물을 주어야 좋기와 잎이 잘 자라듯이, 부딪히는 경계도 안으로 잎 어나는 것이니 안으로 놓아야 하는데 딱히는 주인공에 놓는다 하면서 행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마음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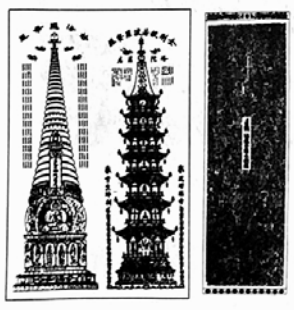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한삭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cm×(세로) 160cm

스님들께는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방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불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길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전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타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엮음/신국판/값 18,000원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와 형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의식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신국판/값 12,000원



깨침의소리
전화 : (02)444-3575

건강백세 ㊷

신장

신장은 생체활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화학적 독소들을 혈액을 통해 받아들여 처리해 맑은 상태로 되돌려주고 독소나 부산물을 수뇨관, 방광을 통해 체외로 배설시키는 장기이다. 깊은 등허리에 붙어서 냄새나는 불질들을 처리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콩모양으로 생겨서 콩팥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최근 의학의 발달로 그 기능이 다각도로 밝혀져 단순한 비뇨기라고 단 볼 수 없게 되었다.

신장은 사구체라고 불리우는 신장 조직에서 삼투압작용에 의해 요산(尿酸)을 비롯한 많은 인체에 불필요한 불질들을 걸러낸다.

그러나 신장은 매우 정교한 조직으로 외부에서 침투하는 독성물질이나 자체의 염증으로 인한 기능 손상시에는 위험하고 중대한 증상들을 잃으킨다. 대개 심한 부종을 주증상으로 하는 신장염은 여러가지 원인중에서도 독감을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수은이나 납을 비롯한 중금속 물질의 흡수도 신세포를 망가트려 결국 혈액이 오염된 상태로 역입되어 심한 경우 혼수에까지 이르게 된다. 요즘은 신부전 환자가 늘고 고가치료인 신장투석(透析)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산업공해의 증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신장은 미세한 조직속에 소변을 장시간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석회질과 요산등이 결합하여 결석을 발생시키게 된다. 결석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특히 뾰족한 모양을 가진 것이 이동할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한 통증을 유발시켜 심한 경우 수술을 통해 제거하지만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파쇄술(碎石術)까지 동원되고 이뇨제를 활용하여 배설시키는 추세이다.

그러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모양이 별사탕처럼 되어 이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는 선택적으로 수술해내는 방법을 쓰게된다. 문제는 예방책으로 평소에 부지런한 운동을 통한 활발한 배설촉진과 섭취음식물의 조절이 필요하다. 주로 결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음식은 동물의 내장이나 시금치, 우유와 오렌지 귤 등의 혼식 등인데 체질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 다 작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활발히 할 것을 가장 권장한다.



독감 완벽치료 안하면 신장염 가능성

충분한 수분흡수·운동이 結石 예방책

신장질환중 가장 무서운 것중의 하나가 신장결핵이나 신장암이다. 특히 신장결핵은 부종없이 오게되어 조기진단이 용이하지 않다. 악화될 경우 신장출혈로 인한 뇨혈증을 보이며 더욱 심해지면 신장이식수술을 통한 신장대체가 요구되며 뇨혈이 혈색소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심이 가는 때엔 절대 철저한 소변검사가 필요하다.

이유없이 피곤하거나 부종없이 배뇨기능이 부전하고 미열이 장기화 되거나 요통등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요즘을 남용되고 있는 각종 약물이나 특히 항생제의 경우 신장기능을 저하시키거나 조직의 변성을 초래할 수도 있어 여러가지 악성 신장질환의 만연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윤 율 상 〈한의학 박사〉

조건없이 사는 삶 ①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특별상〉

기독교재단 대학원 다니며 종교차이로 항상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다
논문심사 앞두고 아버지께서 입원…

지난해 여름, 나는 몹시 지쳐있었다. 여름내내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않아서 집에서 신문과 잡지, 책 등을 뒤적이며 소일했다. 그러던 중 신문에 난 가산불교문화원의 강좌를 발견하였다. 그때 내 심정은 그저 희미한 한가닥 불빛이라도 잡아 내 삶의 무명을 조금씩이라도 벗어던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서 가산불교문화원의 화엄경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해부터 나는 삼재에 들었고 그런 사실에 내 자신이 푹 빠져 삼재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믿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삼재가 시작되던 지난 해 봄 친정아버지를 여의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시아버님을 여의었고 올해는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임신했으나 3개월에 들어서면서 과로로 유산이 되었던 것이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운동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내게 누적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박사과정에 입학하던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나는 박사과정시험에 합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논문의 주제를 탐색하는 것과 달리 나는 구체적인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모대학에 입학을 하였다.

나의 박사과정은 조교생활을 하던 석사과정에 비해 훨씬 수월했다. 공부하는 것은 늘 하고 싶은 일이라 박사과정의 자료를 정리하며 그렇게 어느덧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수님들을 모신 학생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뜻밖에도 그 자리에서 한 교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되는 기도를 했다.

입학을 하면서 그 학교의 재단이 기독교계통인 것은 알았으나 그런 정도인지는 몰랐던 나는 당황했다. 모교에서는 박사과정



그림 · 이준석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업진행중에까지 과고 들었다. 수업중에는 실제사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된 것인지 결론은 '기독교의 사람만한 것은 없다'와 '불교를 미신과 흡사한 종교'로 몰아붙이는 것과 기독교가정과 불교가정의 대비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수업을 듣는 수강생 모두가 마치 기독교 신자인 듯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점점 나는 딜레마에 빠졌다. 서서히 그 대학이 마치 남의 집처럼 느껴졌다. 솔직히 머리속에서는 "이 학교를 포기할까?"아니면 "내 생각대로 논문을 쓸까?"의 양자택일에서 헤매고 있었다. 결정은 둘 다 할 수 없는 일로 내려졌다.

학교는 그대로 다니면서 학위논문의 주제를 바꾸고 졸업후 교수가 되어 마음 편히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하루라도 빨리 학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논문주제는 석사논문의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정해야 했다. 잠잘 때, 밥 먹을 때, 그리고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컴퓨터와 책상앞에서 보냈다.

그러다보니 내게는 두통과 소화불량증이 항상 붙어다녔다. 하루는 약국에서 두통약을 사는데 머리가 희끗한 약사할아버지가 "생긴 건 유하게 생겼는데 왜 매일 두통약을 사느냐"며 핀잔을 주는가 하면 위장약을 사러가면 "술을 마시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소화불량이 오래가면 안된다"며 의아한 눈빛을 하시더니 혹시 스트레스가 있느냐고 하길래 그런 것 같다고 하였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위에 구멍이 난다고 하며 대충 살라고 하셨다. 그렇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속에서 논문심사는 시작되었고 1차 논문심사를 앞두고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

이 무 애 심
〈서울 은평구 신사2동〉

♦ On his attaining the bliss of the right view three things dhammas are left behind by him : conceit and doubt and whatever he has got of virtue and holy works.

자신을 실재(實在)라고 보는 견해와 의혹과 형식적인 신앙, 이 세가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자견(邪見)을 성취하는 동시에 그것들은 버려진다.

♦ He is released also from the four hells, and he is incapable of committing the six deadly sins.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the Assembly,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그는 네 가지 지옥을 떠나, 다시 여섯 가지 큰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 Even if he commit a sinful deed by his body, or in word or in thought, he is incapable of concealing it for to conceal is said to be impossible for one that has seen the state of Nibbana.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the Assembly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㊸

또 그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사소한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감추지 못한다. 궁극의 경지를 본 사람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 As in a clump of tree with their tops in bloom in the first heat of the hot month, so buddha taught the excellent Dhamma leading to Nibbana to the greatest benefit for all.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Buddha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초여름의 더위가 숲속의 가지에 꽃을 피우듯이, 그와 같이 평안에 이르는 묘법(妙法)을 눈뜬 사람이 가르치셨다. 이익이 되는 최상의 일들을 위해서. 이 뛰어난 보배는 눈뜬 사람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bliss (n) 다시없는 기쁨, 지복
*conceit (n) 자만, 사견
*get of ~ 버려지다, 이탈하다
*commit (v) (죄, 과실 등을)범하다, 위탁하다
*deny (과악이)지옥에 갈 정도의
*conceal (v) 숨기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clump (n) 나무숲, 덤불

살아있는 法語 , 살아있는 佛教史料 !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 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btn 불교텔레비전 32
(주) 위동 마린투어



크루즈급 초호화 여객선으로
찾아가는 중국 불교성지순례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불교텔레비전과 중국 최대 현지법인 여행사인 위동마린투어가 국내 최초의 크루즈급
호화여객선으로 모시는 선상여행에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최상의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중국불교 핵심 성지순례 9일 ▶KDS-811 ₩1,350,000



▶KDS-903 ₩1,100,000



중국남부 특선성지순례 9일 ▶KDS-920 ₩1,900,000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 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 선상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성지순례 비디오테잎 및 성지안내서 무료제공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 (02)3270-3471~3
위 동 마 린 투 어 ☎ (02)7 1 1 -9111